

17일 Market Index			
↑ 코스피	2610.69	↑ 코스닥	743.51
	(+44.33)		(+9.25)
↑ 금리 (연이자율)	2.601	↓ 환율 (원/달러)	1448.60
	(+0.005)		(-5.20)

엔비디아 GTC 2025
젠슨 황 입에 쏘린 눈
삼성 HBM 공급 촉각
02



MBK 여파에 PEF '직격탄' 투자 쾅쾅, M&A도 찬바람

PEF, 메기인가 약탈인가

흡플러스 사태에 부정여론 확산
대형 M&A 매물 줄줄이 고전
운용사 자격강화·LBO 제한 등
당국, PEF 규제 논의 급물살



챗GPT로 생성한 '두 얼굴의 사모펀드'.

사모펀드(PEF) A사는 프로젝트 펀드 조성 작업을 접었다. 2000억 원대 자금을 조성해 인공지능(AI) 관련 업체에 투자하려 했지만, 최근 MBK파트너스가 흡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투자자들이 한 발을 뺀 상황이다. 여기에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치면서 '큰손'인 각종 공제회와 은행, 캐피탈 등을 움츠러들게 한다. A사 관계자는 "AI 시장이 급성장하는 데다 작년에도 200% 매출 성장을 이룬 회사여서 무난하게 투자 자금을 모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MBK 사태의 파장이 예상보다 큰 것 같다"면서 "가장 큰 걱정은 시장 참여자들이 자본시장의 한 축이 아니라 '포식자', '탐욕의 약탈자' 썸으로 여기는 문화가 짙어질까 걱정"이라고 했다.

흡플러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사태와 자산시장(주식) 약세로 투자 업계에 매서운 꽃샘추위가 불고 있다. 인수·합병(M&A) 매물이 넘쳐나지만, 위축된 투자 심리로 업계에서는 "딜(거래)이 사라질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관련기사 3면〉

17일 투자은행(IB)과 재계에 따르면

현재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나 잠재적 매물로 꼽히는 조 단위 기업은 ▲ CJ제일제당 바이오그린사업부(6조원) ▲ DIG에어가스(5조원) ▲ 롯데카드(3조원) ▲ HPSP(2조원 6000억원) ▲ 롯데손해보험(2조원) ▲ SK아이이티테크 놀로지(1조 6000억원) ▲ 프리드라이프(1조원) ▲ 모던하우스(1조원) 등이다.

이처럼 매물이 쏟아지고 있지만, M&A 시장은 조용하다. 물밑 움직임만 있을 뿐이다. 사고팔려는 당사자의 접촉은 있지만, 정작 인수확정서에 도장을 찍은 기업들은 나오지 않고 있다.

시장 참여자들은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현금을 보유한 기업들이 M&A 시장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데다, 인수 후보군인 PEF 역시 MBK의 연이은 잡음(흡플러스 기업회생 절차, 영풍과의 고려아연 적대적 M&A)으로 사회적 시선이 좋지 않은 터라 매물로 나온 기업들의 새 주인 찾기가 더욱 어려워 것으로 본다. 여기에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까지 통과돼 M&A 시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PEF 업계의 한 관계자는 "MBK 때문에 올해 장사 접어야 할 판"이라며 원망의 화살을 날린다.

PEF에 대한 여론의 부정적 인식은 정치권의 창끝이 PEF를 향하게 만들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몇몇 의원실에서는 PEF의 투자 투명성 강화, 투자 기간과 구조조정 방식에 대한 규제, 노동자 보호 장치 마련 등을 담은 법안을 논의 중"이라고 귀띔했다.

당장 국회 정무위는 18일 여야 합의로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및 흡플러스 공동 대표, 조주연 흡플러스 공동 대표,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 강경모 흡플러스 임점협회 부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김병주 회장은 해외 출장 때문에 17일 출국한다는 이유로 정무위 증인참석을 하지 않는다.

PEF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확산으로 금융 당국도 버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 사모펀드 운용사 자격 요건 강화 ▲ 투자자 보호 및 정보 공개 의무 확대 ▲ 차입매수(LBO) 제한 등을 감시 항목에 넣었다.

IB업계의 한 임원은 "흡플러스 사태는 MBK의 패착으로 볼 수 있다"면서 "연기금·공제회 등 큰 손들이 보수적으로 돌아설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나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MBK 역외 탈세의혹과 외국인 논란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면서 "이 정도면 민폐라 할 수 있다"며 불멘소리를 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매서운 꽃샘추위

꽃샘추위가 찾아온 17일 오전 서울 중구 퇴계로에서 두꺼운 옷을 입은 시민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뉴스1

JY "삼성다운 저력 잃었다 경영진부터 통렬히 반성을"

삼성전자 쏠계열사 임원 세미나 이재용 회장 '사즉생 각오' 당부

삼성의 위기관이 확대되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이 임원들에게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존의 문제'라며 '사즉생의 각오'를 강하게 당부했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최근 열린 임원 대상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회장의 메시지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지난달 말부터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 계열사의 부사장 이하 임원 2000여명을 대상으로 '삼성다운 복원을 위한 가치 교육'을 하고 있다. 교육에서는 고(故) 이병철 창업회장과 고 이근희 선대회장 등 오너 일가의 경영 철학이 담긴 영상이 상영됐다.

삼성이 전 계열사 임원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하는 것은 2016년 이후 9년 만이다.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임원 대상 교육을 실시해오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됐던 2017년부터 세미나를 중단했지만, 올해 전방위적 위기를 맞아 부활시켰다.

실제 삼성의 '위기'는 지난해 사업보고서에서 수치로 확인됐다. 삼성전자는 주력 사업인 메모리 반도체 D램을



비롯해 TV,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 전반적인 사업 부문에서 모두 점유율이 떨어졌다.

이 회장은 영상을 통해 "삼성다운 저력을 잃었다"며 "경영진부터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공박했다.

또 "중요한 것은 위기라는 상황이 아니라 위기에 대처하는 자세"라며 "당장의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술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이 회장은 그간 "기술 중시, 선행 투자의 전통을 이어 나가자. 세상에 없는 기술로 미래를 만들자", "첫 번째도 기술, 두 번째도 기술, 세 번째도 기술"이라며 기술 경쟁력을 강조해왔다.

세미나에서는 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이 외부에서 바라보는 삼성의 위기 등을 주제로 집중 강연했다. 이 자리에서는 "실력을 키우기보다 '남들보다만 잘하면 된다'는 안이함에 빠진 게 아니냐" "상대적인 등수에 집착하다 보니 질적 향상을 못 이루고 있는 것 아니냐" 등의 지적도 잇따랐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OECD, 韓 성장률 전망 2.1%서 1.5%로 하향

불과 3개월 만에 0.6%p 내려 "예상했던 것보다 악화될 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증가 폭이 1%대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종전(지나해 12월) 전망보다 무려 0.6%포인트(p) 낮춰 잡았다. 이는 12·3 계업 등의 한국 정치상황이 반영된 수치다.

OECD는 17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제시했다. 불과 3개월 전 수치(2.1%)에서 0.6%p나 내렸다. OECD는 "한국은 성장세가

유지되겠지만, 전에(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악화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탄핵정국에 따른 정치 혼란을 염두에 둔 하향조정인 것으로 풀이된다.

OECD의 예측치는 기획재정부(1.8%)나 한국은행(1.6~1.7%), 국제신용평가사 피치(1.7%)의 전망치보다도 낮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2.0%를 예측했으나 해당 보고서에서 탄핵정국에 따른 영향은 반영하지 않은 바 있다.

우리나라 하향 조정 폭은 OECD가 언급한 주요국 가운데 멕시코(-2.6%p) 다음으로 컸다. 일본(-0.4%p), 미국(-0.2%p) 등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역시 내렸지만 한국에 비해선 폭이 작았다.

OECD는 올해 전 세계 GDP가 3.1%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종전 전망(3.3%)에서 0.2%p 하향 조정했다. 주요 20개국(G20) 예측치도 0.2%p 내린 3.1%를 제시했다.

세계 경제 위험요인으로는 무역장벽 확대를 비롯해 인플레이션 지속 등을 꼽았다. OECD는 무역 장벽 확대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분절화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라 통화정책이 제약되고 및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우려도 제기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메트로 한줄뉴스



▲최 대통령 권한대행 "유휴 국유재산 활용 청년 창업지원 시설 지속 확대" /사진 뉴스1
▲야 5당, "만장일치尹 파면하라" 시민단체와 시국선언

▲우원식 "개헌 여건 무르익어... 여야 합의할 방안 압축돼야"
▲권성동 "미국이 민주당 불신해 민감국가 지정했다는 설 있어"

▲양기대 "윤석열은 헌법재판소, 이재명은 법원 판단 존중해야"
▲경실련, '유산취득세 전환' 기재부 비판... "경제적 불평등 심화할 것"

젠슨 황 입에 쏠린 눈... 삼성전자 HBM 공급 발언 촉각

엔비디아 'GTC 2025'

SK·LG 등 글로벌 기업 총출동
엔비디아, 루빈 등 정보공개 계획

삼성, 납 테스트 통과소식 없어
HBM 공급 여부 발언에 초집중

엔비디아의 개발자 행사 'GTC 2025'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물론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총출동한다. 이번 행사는 최근 중국발 '딥시크 쇼크' 이후 열리는 첫 행사인 만큼 인공지능(AI) 칩 분야의 선두주자인 엔비디아가 내놓을 전략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국내 업계는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삼성전자 등의 HBM 공급 여부 등을 언급할 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이날부터 21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에서 세계 최대 AI 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지난 2월 국립대만 대학교에서 열린 '컴퓨텍스 2024'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시

발자 콘퍼런스인 'GTC 2025'를 개최한다. 올해 GTC에선 로봇과 자율주행차로 대표되는 물리 AI, 자율적으로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에이전틱 AI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 기술을 논의할 예정이다. SK하이닉스, LG전자, 네이버 등은 GTC에서 전시 부스를 운영한다. 또

마이크론, 어도비, ARM, 에어비앤비, 델 테크놀로지스, 소프트뱅크, TSMC 등 글로벌 반도체·IT 기업들도 대거 참석한다.

업계는 엔비디아가 내놓을 차세대 신제품과 방향성에 대해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 딥시크 쇼크 이후 엔비디아의 폭발적인 성장세가 계속될 것인가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엔비디아는 차세대 그래픽처리장치(GPU) 시리즈인 '루빈'은 물론 '블랙웰 울트라'로 불리는 B300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블랙웰에는 5세대 HBM(고대역폭메모리)인 'HBM3E'를, 루빈에는 6세대 HBM 'HBM4'가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젠슨 황 CEO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 차세대 블랙웰 B300 시리즈 '블랙웰 울트라'가 올해 하반기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블랙웰 울트라는 288GB 메모리와 1초당 8TB 대역폭 등

으로 전자 대비 추론 능력을 한층 강화한 칩이다. 메모리 집약적인 AI 모델을 실행하고 학습하는 데 적합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엔비디아는 4분기 실적 발표에서 블랙웰의 4분기 매출이 110억달러(약 15조 966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행사는 18일 예정된 젠슨 황 CEO의 기조연설이다. 황 CEO는 내년 출시를 목표로 한 차세대 GPU 시리즈 '루빈'의 개발 현황과 AI 수요 전망을 언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루빈은 2026년 출시 예정으로 우주의 암흑물질 존재를 밝혀낸 미국의 여성 천문학자 베라 루빈에서 따온 네이밍이다.

미국 기술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는 "이번 행사에 루빈 이후 제품에 대한 내용도 일부 공개될 전망"이라며 "루빈 울트라 GPU 혹은 루빈 다음 세대의 GPU 아키텍처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업계의 초유의 관심사는 황 CEO가 삼성전자의 HBM 공급 관련 발언을 할 지 여부이다. 현재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5세대 HBM인 HBM3E를 납품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아직 납품을 위한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오는 19일 주주총회가 예정된 만큼 이번 GTC 행사에서 젠슨 황의 입에서 나오는 언급이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도 보인다. 실제 지난해 GTC 기자간담회에서 황 CEO가 "삼성의 HBM을 현재 테스트 중에 있다"고 답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삼성전자가 요동치는 일도 있었다.

한편 엔비디아는 20일 GTC 최초로 '양자의 날(Quantum Day)'을 진행한다. 양자 컴퓨팅 업계 주요 인사들과 함께 패널 토론에 참여해 양자 컴퓨팅의 미래를 조명할 계획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로청 비교해서 구매해 보세요!
로봇청소기 페스타
3.1(토) - 3.31(월)
가전이 쉬워지는 곳
LOTTE HIMART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韓, 미국 민감국가 지정에 “에너지부와 적극 협의하라”

崔 권한대행, 산업부 장관에 지시
“한·미 간 과학기술·에너지 협력 부정적 영향 미치지 않도록 해야”

미국 에너지부가 올해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올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번 주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적극 협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미국 측에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한 사안을 적극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민감국가 목록 등재란 개인 단위는 물론 기업과 국가 수준의 교류까지 제한되는 조치로, 한국이 포함된 범주는 민감국가 목록 중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다.

한미동맹 역사상 전례 없던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의 연구자들이 미 에너지부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을 방문할 때마다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미 정부 관계자는 "한미 양국 과학 교류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민감국가 목록 포함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 등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포함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들이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해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안덕근 산자부 장관에게는 이번 주 중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적극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미국이 4월 2일부터 부과할 예정인 상호관세와 관련해 통상교섭본부장·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면담, USTR 불공정무역 관행 의견 수렴 현황을 논의하고 우리측 대응 논리와 향후 대응 계획을 점검했다.

최 권한대행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측의 동향을 파악하고 미국 측에 우리의 노력을 적극 설명할 것"이라며 "상호관세 대상 유력 업종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부처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강인선 외교부 2차관, 박성택 산업부 1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서예진 기자 syj@

밸류업 등 '파트너' 기대했는데... 투자금 회수 '엑시트' 급급

사모펀드 '명암'

M&A 시장 활성화 필수불가결 장기적 가치보다 단기 차익 집중 기업 구원투수 이미지 희미해져

토종 PEF들이 외국계 '떡튀(먹고 튀다)'의 모습을 답습하고 있다. 여기에는 '검은머리' 외국인들도 있다. 기업의 파트너이자 구원투수라는 명성은 희미해진 모양새다. PEF들이 투자 기업의 장기적 가치 제고보다는 고배당, 유상감자 등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고 단기 차익 실현에 치중하고 있었다.

PEF는 기업을 왜 사들일까. 답은 단순하다. 기업들 잘 포장해 되팔아 이익을 남기는 게 목적이다. 하지만 현실은 우울했다.

PEF의 손에 넘어간 기업들의 밸류업은 'B' 학점 수준이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2023년 기준 약정액 상위 5대 PEF가 경영권을 소유한 28개 기업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인수 후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상승세에 비해 자기자본이익률(ROE) 증가세는 저조했다. 5대 PEF는 한앤컴퍼니, MBK파트너스, 스티인베스트먼트, IMM프라이빗에쿼티, IMM인베스트먼트 등이다. ROE는 당기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한 값으로, 기업이 주주로부터 투자받은 자본으로 얼마나 많은 이익을 창출했는지 알려주는 지표다.

이들 PEF가 경영한 기업들의 ROE는 인수 후 1년에서 3년 사이 2년간 평균 1.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MBK파트너스의 경우 실적이 부진한 네파와 흙플러스 등의 영향으로 인수 기업들의 첫째 평균 ROE가 7.0%에서 3년 후 4.8%로 2.2%포인트 떨어졌다. MBK파트너스가 경영권을 가져간 기업들의 인수 첫째에서 3년 후 매출액 증가율은 0.9%에 그쳤다.

투자나 고용도 줄었다. 지난해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내 대형 사모펀드 8곳이 인수한 기업 중 사업보고서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25곳의 인수 1년 전후를 비교한 결과, 인수 1년 후 매출은 22조3019억원으로 인수 1년 전보다 9.6% 감소했다. 투자도 8736억원으로 16.2% 줄었다. 고용은 3만3731명으로 인수 1년 전보다 1.8% 늘어나 사실상 제자리걸음 수준이었다. 반면 영업이익(연결 기준)은 1조6310억원으로 인수 1년 전의 1조2903억원보다 26.4% 증가했다.

◆ 사모펀드, 침략자인가 동반자인가

사모펀드는 빌린이자 희생자였다. 시장에서는 MBK를 대표적인 빌린으로 본다.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흙플러스의 최대주주 MBK가 인수한 네파와 모던하우스는 재무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MBK는 차입매수(LBO) 방식을 활용해 기업을 인수한 후, 인수금융 부담을 피인수 기업에 전가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MBK는 2013년 네파를 9970억원에 인수하면서 4800억원을 인수금융으로 조달했다. 이후 네파의 부채비율은 34%에서 231%로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1182억원에서 140억원으로 급감했



MBK파트너스가 인수한 흙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잠재적 자금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4일 서울 시내 한 흙플러스 모습.

다. 모던하우스도 2017년 인수 후 2021년 3400억원 규모의 자본구조조정(리캡)을 단행했으며, 이후 부채 부담이 커지면서 매각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고려아연과의 잡음도 끊임없다. 이달 말 주주총회에서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경영권을 둘러싸고 재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빌린 취급 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단기 엑시트'를 위해 무리한 구조조정과 자산 매각 등에 치중한 탓이다. 김대중세종대학교 경영학부교수는 "사모펀드는 재무적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익을 남기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된다"면서도 "기업을 육성하거나 성장시키기보다는 빠른 매각을 통해 이익을 남기려고 하고, 단기적 목표를 이루려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짚었다.

반면, PEF가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 가치를 높이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 사례도 있다.

MBK, 흙플러스 기업회생 등 논란 한앤컴퍼니, 기업 오너리스크 해소 IMM컨소시엄, 산업 구조조정 지원

한앤컴퍼니가 남양유업을 인수한 것이 대표적이다. 한앤컴퍼니는 창업주 리스크로 신뢰를 잃은 남양유업을 2023년 1월 인수한 후, ▲자사주 매입·소각 ▲경영 투명성 확보 ▲주주환원 정책 강화 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 남양유업은 순손실 662억원에서 순이익 7324만원으로 흑자 전환했고, 주가도 27.71% 상승했다.

KT&G도 2006년 행동주의 투자자 칼 아이칸의 압박을 받은 후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했다. 최근 KT&G는 4년간 2조4000억원 규모의 배당과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하며, 발행 주식의 20%를 소각하고 ROE 목표도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했다.

PEF는 M&A 시장에서 중요한 자금 공급원 역할도 한다. SK그룹은 주요 M&A 거래에 사모펀드를 활용해 재무 리스크를 줄였고, IMM컨소시엄은 태영그룹이 보유한 국내 1위 폐기물 처리업체 에코비트를 인수하며 산업 구조조정을 지원했다.

MBK가 피해자 흉내를 했던 것도 이

런 이유가 바다에 깔려 있다.

김광일 MBK 부회장은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 흙플러스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른바 '떡튀' 논란과 관련해 "채권자가 우선되는 회생 절차에서는 주주가 가장 큰 희생을 당한



한앤컴퍼니가 인수한 남양유업은 오너리스크를 해소하는 등 흑자전환에 성공하며 주가가 대폭 상승했다. 남양유업 본사 전경 /뉴시스

다"며 "MBK는 흙플러스에 3조1000억원을 투자했다. MBK 유불리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MBK가 2015년 흙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1조 원 안팎의 운용 보수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3조2000억 원 중 블라인드 펀

드(3호 펀드)로 들어간 부분은 5000억 원 남짓"이라며 "나머지는 공동 투자라 관리 보수가 없고, 최근 몇 년간 3호 펀드에서도 보수를 받은 게 없다"고 해명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교보생명 이웃사랑 이야기 '황제펭귄' 편

생명보험은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사랑입니다

매서운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서로를 떠안고 위치를 바꿔가며 체온을 유지하는
황제펭귄의 허들링처럼

생명보험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어려움을
이웃과 함께 이겨내는,
따뜻한 이웃사랑입니다

KYOBO 교보생명

심장 멈춘 K산업... '반도체·車·철강' 생존 걸고 다시 댈다

- 글 쓰는 순서 -

1. '피크 코리아' 그림자 드리운 韓 경제
2. 경제는 심리... 모든 경제주체 위축
3. 경제 이끌 기업들 "앞이 안 보인다"
4. 소비시장 주체 가계 "쓸 돈이 없다"
5. 리더십 없는 정부 "백악이 안 통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었던 핵심 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내수 시장은 30여년전 외환 위기에 필적하는 불황을 겪고 있으며 주력산업은 중국의 맹추격에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반도체와 자동차, 철강, 배터리 등 핵심 산업은 저성장 구조 극복과 한단계 도약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지만 미국, 중국 등 주요 경쟁국 변수에 바람 앞의 촛불 형국이다.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대다수 산업계가 신수종 사업 내재화와 역동성 회복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내수 침체·글로벌 경쟁에 주력산업 흔들
반도체·車·철강 실적 줄줄이 뒷걸음질
수출 버터도 내수 부진, 기업 신사업 고심
전문가 "신성장동력 확보 없인 생존 위태"

◆예견된 경제 위기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는 오래전부터 예고됐다. 올해 초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상경 계열 교수 11명에게 '피크 코리아에 동의하느냐'는 조사를 실시한 결과 3명중 2명이 '그렇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평균 1.8%로 추정했다. 한국은행 추정치(2.0%)를 밑도는 수준이다. 말 그대로 '제로 성장' 공포가 한국 경제를 엄습하고 있다.

반도체, 스마트폰, 가전 등 다양한 사업 부문에서 글로벌 시장을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는 전반적으로 실적 악화에 직면했다.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TV시장 점유율은 2023년 30.1%에서 지난해 29.3%로 떨어졌다. 스마트폰도 19.7%에서 18.3%로 감소했다. 핵심 사업인 D램은 42.2%에서 41.5%로 축소되는 등 주요 제품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확대가 아닌 위축됐다.

SK그룹의 핵심 사업인 에너지 분야도 실적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과 그 자회사인 SK온은 지난해 실적 반등에 실패했다. SK이노베이션의 지난해 연간 실적은 매출 74조 7170억원, 영업이익 3155억원을 기록했다. 연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84.3% 감소했다. SK온은 지난해 매출 6조 2666억원, 영업손실 1조 1270억원을 기록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인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 외에도 에너지 기업들은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와 원자재 가격으로 부담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삼성DSI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22.6%, 영업이익은 76.5% 각각 쪼그라들었다.

자동차 업계도 내수 부진에 따른 실적 악화를 겪고 있다. 국내 완성차 업계는 지난해 수출이 278만대로 0.6% 증가했지만 내수는 413만대로 2.7% 감소하며 전체 판매량은 마이너스였다. 업계 만행인 현대차도 국내 부진으로 전년 대비 1.8% 감소한 판매량을 기록했다.

'산업의 쌀'로 불리며 자동차, 건설, 조선, 전자 등 모든 산업에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철강산업도 내수 부진의 홍역을 겪고 있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해 매출 72조 6880억원, 영업이익 2조 174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8%, 38.4% 감소한 수준이다. 현대제철은 매출 23조 2261억원, 영업이익 3144억원을 기록, 각각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4%, 60.6% 쪼그라들었다. 동국제강의 매출은 3조 5275억원, 영업이익 1025억원으로 전년보다 매출은 34%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56.5% 줄었다.

우리 기업들의 실적 악화는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경협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올해 3월 BSI 전망치는 90.8을 기록했다. BSI는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고, 낮으면 부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제조업 BSI(95.1)는 지난해 4월(98.4)부터 1년 연속, 비제조업 BSI(86.3)는 올해 1월(84.9)부터 3개월 연속 기준선 아래에 머물렀다.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최근 한 세미나에서 "국내 주력 산업이 전례 없는 위기"라며 "고부가가치 첨단기술 개발에 배수의 진을 쳐야 하고 신시장을 공격적으로 개척하며 과잉설비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K-제조, 대대적 체질개선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TV, 가전제품, 웨어러블 등 전 제품군에 AI를 신속하게 통합해 경쟁력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경쟁사보다 빠르게 자사 제품에 AI를 적용해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바로 휴 AI 프레임워크와 '갤럭시 AI'가 대표적이다. 현재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수요가 작지만 갤럭시 AI를 기반으로 스마트폰과 가전제품을 연결한 서

비스 구축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반도체 부문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은 SK하이닉스에, 파운드리 사업은 TSMC에 밀리는 상황이다. 이에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환하고, 선단공정 전환을 가속화해 경쟁력 회복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수요 모멘텀이 있는 HBM 및 고용량 DDR5 판매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디스플레이 부문도 스마트폰에 편중된 사업 구조를 다각화하고 프리미엄 TV패널 제품을 강화하고 있다.

송단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AI는 산업 전반의 기반 기술이 될 것"이라며 "AI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LG그룹은 계열사별 전략 구상에 집중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중국 광저우 LCD 공장을 C SOT에 매각하고 OLED 생산에 집중하고 있다. 매각을 통해 발생한 2조원대 자금을 6세대, 8.6세대 OLED 개발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LG이노텍은 차량용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모듈을 앞세워 기존 전자부품사업을 차량용 반도체 분야로 확대해 수익성 다변화에 나선다.

완성차 업계는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파워트레인을 장착한 신차 라인업 확대에 나선다. 특히 가파른 성장세에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라인업과 생산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대차·기아는 올해 대형 SUV 팰리세이드와 소형 SUV 셀토스 등 신형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해 판매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특히 현대차는 올해 R&D 투자 6조 7000억원, 설비투자 8조 6000억원, 전략투자 1조 6000억원 등 총 16조 9000억원을 쏟아 붓는다. 총 투자액은 전년 대비 16.3% 증가했고, R&D 투자는 37.2%, 설비는 20% 증가했다. 르노코리아자동차와 KG모빌리티 등 완성차 업체들도 내수 시장 공략을 위해 친환경 라인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철강업계는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있다. 포스코는 올해 61개 저수익 사업과 비핵심 자산을 매각해 1조 5000억원의 현금을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장인화 회장 취임 이후 자산 효율성 개선을 위한 구조 개편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중국 베이징법인과 충칭법인을 매각해 몸집을 줄인 현대제철은 올해 비상경영 체제에 돌

입했다. 전 임원들의 급여를 20% 삭감하고, 전 직원 대상 희망퇴직도 검토한다. 여기에 건설경기 악화에 따라 최근 포항 2공장 가동을 축소하고 포항공장 기술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과 당진제철소 및 인천공장 전환배치 신청을 받은 상태다.

동국제강은 원가절감에 집중하고 있다. 동국제강 인천 공장의 경우 주간 조업을 줄이고 값싼 심야전기를 활용한 야간 조업시간을 늘리는 등 원가절감을 추진하고 있다. 생산 물량을 조절하기 위해 공장 가동률을 30% 이상 낮췄고 인력 구조조정 대신 재배치 방식으로 운영효율을 높이는데 집중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각 기업마다 위기 돌파를 위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체질개선에 집중하고 있다"며 "혁신 DNA 확보를 통해 한국 산업계의 역량을 한단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현대차·포스코 등 체질 개선 본격화
AI·친환경·고부가 기술로 돌파구 모색
구조조정·투자 확대... '위기 DNA' 가동
세계 총수들 "지금은 생존 걸린 승부처"

◆위기 극복 강조해온 총수들

연초부터 재계 총수들은 현상방의 심각성과 위기 극복을 강조해왔다.

지난해 말부터 삼성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강조해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최근 임원 대상 세미나에서 "삼성다운 저력을 잃었다"며 "사즉생"의 각오로 위기를 대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회장은 "삼성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존의 문제에 직면했다"며 "경영진부터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당장의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어려움을 알면서도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본원적 경쟁력과 AI 사업 경쟁력 강화를 주문했다.

정인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신년사에서 위기에 맞서는 관점과 자세, 변화와 혁신, 위기극복 DNA를 강조했다. 정 회장은 "우리는 항상 위기를 겪어왔고, 훌륭하게 그 위기들을 극복했다"며 "비관주의에 빠져 수세적인 자세로 혁신을 도외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LG의 시작은 고객에게 꼭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남이 미처 하지 못하는 것을 선택한다"는 LG의 Day 1 정신에는 고객을 위한 도전과 변화의 DNA가 자리 잡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국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것부터 착수하라. 남이 미처 하지 않은 것을 선택하라. 일단 착수하면 과감히 밀고 나가라"는 고(故) 구인회 LG창업회장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감도.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반도체 공장 내부.

Samsung
Financial Networks

삼성생명

당신을 넘어 그다음 세대까지 지키는 보험

한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당신

언젠가 당신의 소중한 아이가
세상의 어려움을 마주할 때,
늘 곁에서 지켜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당신을 잘 아는 삼성생명이
보험금청구권 신탁으로 그 마음 전합니다

보험을 넘어서는 보험

삼성생명 보험금청구권 신탁

보험금청구권 신탁: 고객의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삼성생명)가 관리 운영하여 생전에 지정한 가족에게 원하는 방식대로 지급하는 상품

삼성패밀리오피스 02-2051-4030 서울FP센터 02-3706-3916 강남FP센터 02-3451-1700 경인FP센터 032-516-3900 경원FP센터 031-226-1529
충청FP센터 042-484-0821 대구FP센터 053-250-5150 호남FP센터 062-384-0592 부산FP센터 051-630-6620

*투자자는 신탁계약에 대하여 삼성생명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 신탁계약은 자산가격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이 신탁계약은 운용자산별로 별도의 보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탁보수는 집행보수 0.5%, 후취보수 연 0.3%가 발생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4-04510호(2024.11.12 ~ 2025.11.11)

與 국회서 단결 외치며 ‘결속’ vs 野 광화문서 ‘탄핵’ 시국선언

탄핵 정국, 여야 격돌

권영세 “당 지도부 믿고 단결 보수, 실력·품격으로 野 압도해야”

박찬대 “헌재, 만장일치 파면만이 답 탄핵 지연 땀 국민 고통 가중 커져”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전국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 주요당직자 연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각계 긴급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마친 뒤 헌법재판소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17일 당원과 당직자를 국회로 불러 모아 내부 결속을 다진 반면, 민주당은 시민사회와 함께 비상시국선언을 하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 지정과 파면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 주요당직자 연수를 열고 ‘단결’을 강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똘똘 뭉쳐서 반드시 뚫든지 승리할 수 있도록 권성동 원내대표와 당직자들이 나름대로 전략을 세우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조금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그리고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더라도 당 지도부를 믿고 잘 따라와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보수 정당은 실력과 품격에서 다른 당을 압도해야

한다”며 “앞에서 정치하는 의원뿐 아니라 지역에서 수고하는 여러분도 실력과 품격 모든 면에서 다른 당 사람을 압도하고 우리 당 지지를 확실히 끌어내도록 앞장서서 활약하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제 우리에게 또 대한민국 명운을 건 큰 선거를 치러야 할 때가 올지도 모르겠다”며 “그럴 때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열린 ‘시민사회와 함께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비상행동’ 긴급시국선언 집회에 참여하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도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행진했고 ‘윤석열탄핵의원연대’ 소속 민주당, 진보당 의원들은 단식을 이어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긴급시국선언 정당인 모두발언에서 “12·3 비상

계엄 내란은 명백하게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였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후진 독재국으로 만들어 장기집권하려던 천안공노할 사건이었다”고 했다.

이어 “정쟁이 결코 될 수 없는 사안인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 마치 정쟁인 것처럼 본질을 몰타기 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극우세력은 이 내란을 옹호하며 정

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헌재 겁박이 도를 넘었고 폭력 선동도 끊이지 않고 있다. 헌재의 선고가 늦어질수록 그 폐해는 커지고 국민은 극단적 대립과 대결로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가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정은 만장일치 파면뿐”이라며 “헌재 재판관들이 헌법과 법관의 양심에 기초해 신속하고 단호한 결정을 내려주길 촉구한다. 오늘 당장이라도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확인해달라”고 했다.

긴급시국선언에 참여하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에서 온 자영업자 박 모씨는 “비상계엄 이후 내수가 침체된 정도가 아니라 죽었다고 할 정도다. 원래 밤 10시에 마감하는데, 요새는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저녁 8시에 손님이 식사 중이시라고 해도 마감을 일찍 한다고 빨리 드셔달라고 부탁한다”며 “헌재가 빨리 탄핵심판 결정을 내려야 경기도 살아날 텐데 걱정이다”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긴급시국선언 집회 참여자들은 종로구 안국동 헌재 앞에서 행진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17일부터 윤석열 탄핵 촉구 릴레이 1만배를 광화문 광장에서 3인1조로 시작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與 “승복하라” 압박... 野 “尹 대통령이 먼저 책임져야”

정치권 ‘승복’ 공방 격화

與 “국가 혼란 막으려면 승복해야” 野 “계엄 선포尹, 책임 먼저 져야”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면 한국 사회의 일대 극심한 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당을 중심으로 헌재의 선고를 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연일 나오고 있다. 다만, 야권은 당연한 이야기이며, 정작 탄핵심판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할 당사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17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헌재 탄핵심판 승복을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에 작금의 국가적 혼란을 멈추려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민석 최고위원. /뉴시스

정치권의 탄핵 심판 선고에 제대로 승복해야 한다. 우리 당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며 “헌재의 판결은 단심제이고,

당연히 승복할 수밖에 없다. 승복해야만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까지 ‘8전 8패’, 탄핵 선고 결과에 대해서조차 승복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 대

통령 탄핵 선고에 대해 과연 승복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같은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승복을 해야 할 당사자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인데,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보여온 태도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을 투쟁을 하지 않고 기존과 같은 기조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의원의 헌재 앞 릴레이 시위에는 ‘개별 의원의 행동’이라며 묵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권 원내대표를 향해 “제발 말만 하질 말고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그 동안 헌재재판관 인신공격과 헌재를 겁박한 행위에 대해 우선 사과하고, 최상목 부총리에게도 마은혁 재판관을 즉각 임

명하라고 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헌정질서 유린에 앞장선 국힘당의 국회의원들도 징계하라”며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과 윤상현·서천호 의원을 제명하고, 극우집회에 참석한 의원들도 징계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승복 메시지를 요구했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정치권의 승복약속 요구가 있다. 당연하다. 그러나 승복을 약속할 진짜 당사자는 윤석열”이라며 “자기 살고, 김건희 살리자고 이 난리를 만든 당사자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의 갈등, 헌재에 대한 압박과 폭력을 막아야 한다”면서 “헌재 선고 이후, 안정적인 국가 정상화가 이뤄지기 위해 피청구인 윤석열이 마지막 한 점 양심을 확인하려 한다”고 부연했다.

/*박태홍 기자

보수층 ‘대항마 부재’... 이재명, 양자대결서 모두 앞서

李 적합도 46.9%, 김문수 18.1% 李, 김문수 등 모두 20%p 이상 격차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야 정당 지지율이 접전을 벌이고 있으나,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에 대한 진보 지지층의 몰입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반해, 보수 지지층은 아직 뚜렷한 후보를 선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17일 발표된 리얼미터(에너지경제신문 의뢰) 여론조사에 따르면 여야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이재명 대표는 46.9%를 기록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은 18.1%로 뒤를 이었다.

뒤이어 홍준표 대구시장(6.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6.3%), 오세훈 서울시장(6.2%),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2.4%) 순이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2.2%, 김동연 경기지사는 1.2%,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0.8%,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0.4%를 기록했다.

야권 후보 지지율을 모두 합치면 51.4%이며, 여권 후보의 총합은 39.5%

다. 기타·없음·잘모름은 9.1%로 나타났다. 탄핵심판 선고가 가까워지자 야권 지지층의 결집력이 높아지고, 여권 지지층은 여러 후보가 분산된 데다 응집력도 떨어진 상태로 풀이된다.

차기 대선 양자 가산대결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여권의 주자들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이재명 대표와 김문수 장관의 양자대결에서 이 대표는 51.7%, 김 장관은 30.7%로 21.0%포인트(p) 차이를 보였다.

이 대표와 오세훈 시장 양자 대결은

이 대표가 51.8%, 오 시장은 25.6%로 26.2%포인트 차이였고, 홍준표 시장과의 대결에서는 이 대표 52.3%, 홍 시장 25.0%로 27.3%포인트 격차였다. 이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의 대결에서는 이 대표 51.8%, 한 전 대표 18.6%로 33.2%포인트 차이였다.

여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를 살펴보면 이재명 대표가 1위이며, 나머지 야권 후보들은 7~10위를 기록하고 있다. 2~6위는 여권 후보들이 지지율을 나눠 갖고 있다. 양자 대결에서는 전반적으로 이 대표의 지지율이 50%를 넘으며, 여권 주자들과 20~30%포인트의 격차를 벌리는 셈이다. 이 같은 상황은

야권 지지층의 경우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 있지만, 여권은 아직 ‘이재명 대항마’를 선택하지 못해서 생긴 결과로 보인다. 다만 헌재 나타난 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대항마’가 선택되더라도 야권 지지세가 더 높은 상황이다.

한편 이날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무선 자동응답(RDD)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7.2%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 기자 syj@

|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도록



SK이노베이션이 SK E&S와 하나되어 100조 규모의 아태지역 최대 민간 에너지 기업으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에너지를 찾아라

SK이노베이션이 SK E&S와의 합병으로 더 크게 더 높게 도약합니다

펼쳐진 지도 속 더 나은 내일을 향하는 우리의 에너지를 직접 찾아보세요

QR 코드를 찍어 접속해 10개의 숨은그림을 찾아보세요!



SK 에너지

SK 지오센트릭

SK 온

SK 엔루브

SK 인천석유화학

SK 아이이테크놀로지

SK 어스온

여야, '소득대체율' 합의에도... 연금개혁 논의 좌초 위기

여야, 국민연금법 상정 추진
尹 탄핵심판 앞두고 속도전
특위 구성 놓고 평행선 대립
책임공방에 개혁 불발 우려



여야가 소득대체율에 대한 합의를 이루면서 연금개혁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지사 내부. /뉴스시스

연금개혁이 막판 속도전에 돌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가 주요 쟁점이었던 소득대체율에 합의를 이루면서다. 다만 여·야가 협의체 구성을 두고 대립을 지속하고 있어, '골든타임'을 앞둔 연금개혁 논의가 다시금 좌초 위기에 처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르면 오는 20일 본회의에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여·야가 지난 14일 연금개혁의 최대 쟁점이었던 소득대체율에서 합의하면서, 정체됐던 연금개혁 논의가 탄력을 받은 모습이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연금개혁의 '골

든타임'이 끝나가고 있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개혁 논의가 소득 없이 한 달 넘게 지체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압박해서다. 선고 이후에는 결과와 관계없이 정치권의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연금개혁 논의는 표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연금개혁이 불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커지자 민주당은 지난 14일 여당의 소

득대체율 43% 방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이 고수했던 소득대체율은 44~45% 수준이다.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민주당이 연금개혁 문제에서 한발 물러섰다고 진단했다.

여·야가 모수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방안)의 시급함에 뜻을 모은 바 있는 만큼, 정치권에서는

연금개혁이 이르면 3월 내에 성사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실제 야당은 18일까지 보건복지위 논의를 마무리 짓고,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소득대체율 합의로 연금개혁 논의가 막판 '속도전'에 돌입했지만, 연금개혁 논의의 또다른 주요 쟁점인 연금특위 구성에서는 잡음이 여전하다. 여당은 '여·야 합의 처리'를 명시한 연금특위를 우선 출범해야 한다는 견해를, 야당은 합의된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견해를 지속하고 있다.

특위 구성에 여·야가 이견이 있는 것은 향후 연금개혁 논의 시의 주도권 경쟁 때문이다. 특위 구성 시 여·야 합의를 명시하면 여당과 야당은 각 6석으로 동등한 입장이 된다. 합의를 명시하지 않으면 비교섭단체 1석이 조국혁신당 몫인 만큼, 야권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

여·야가 소득대체율 합의에도 대립

을 지속하면서 연금개혁이 불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여·야는 연금개혁 지연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공세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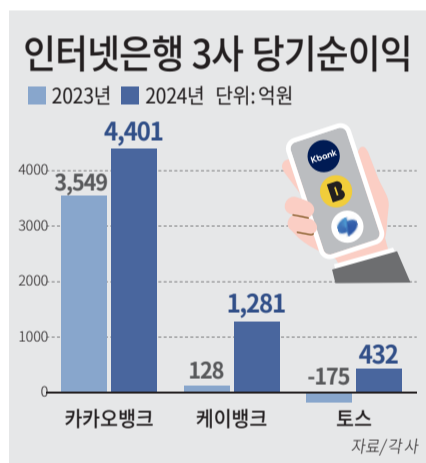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 불만을 감수하고 소득대체율을 43%까지 양보했는데, 국민의힘은 하나를 양보해 합의될 것 같으면 또 조건을 내걸며 국정을 마치 어린이가 장난하듯 하는 것 같다"며 "여당답게 중대한 국가적 과제에서 대한민국의 살림을 책임져야 한다"라고 압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민주당은 모수 개혁 합의가 이 대표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밝혔는데, 이 대표가 진정성이 있다면 합의 처리라는 상식적인 원칙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며 "(민주당이) 오늘이라도 정략적 계산을 내려놓고 특위 구성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맞섰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금리 낮고, 이용 간편... 인터넷은행, 작년 '역대급 실적'

카카오·케이뱅크, 최대 실적
토스뱅크, 4년만에 흑자전환
저금리·편리성에 가입 증가
저원가성 예금 비중 높아져



이용 수 있도록 대화형 문구로, 1개 화면에 한개 테마를 제공하는 형식을 활용한다.

예컨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납세의무를 '세금을 내나요?'라고 묻거나 '개설완료를 만들었어요'라고 표현하는 방식이다. 토스뱅크 가입자수는

2022년 10월말 500만명에서 2024년 11월말 1150만명으로 증가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4401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실적을 경신했다. 1년전과 비교하면 24% 증가한 수준이다.

카카오뱅크의 지난해 말 고객 수는 2488만명으로 1년간 204만명(8%) 증가했다.

케이뱅크도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케이뱅크의 당기순이익은 1281억원으로 1년전(128억원)과 비교해 10배를 넘어섰다.

케이뱅크 가입자는 1274만명으로 지난해 321만명(25%) 증가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또한 본인인증방법과 이체 등이 편리해지면서 고객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늘어난 고객은 인터넷은행

의 저원가성 예금비중을 늘리고 있다. 저원가성예금은 금리가 연 0.1% 내외 수준으로 은행으로서 적은 비용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이다. 저원가성 예금이 많을수록 대출금리차(예대마진)가 커져 수익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카카오뱅크의 저원가성 예금(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 비중은 60.6%로 1년전(55.3%)보다 5.3%포인트(p) 상승했다.

케이뱅크의 저원가성 예금 비중은 59.5%로 집계됐다. 전년 47.1%에서 12.4%p 올랐다. 은행권 전체 평균(38.3%) 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높아진 저원가성 예금비중은 대출금리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월 기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분할상환방식(10년이상) 주택

담보대출 금리는 평균 4.11%, 3.81%로 집계됐다.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평균 4.43%보다 낮다.

서민금융상품을 제외한 신용대출 금리도 카카오뱅크 4.88%, 케이뱅크 4.94%로 5대은행(5.3%)보다 낮은 수준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저원가성 예금비중이 높아지면 대출금리 인하여력이 많아져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공급할 수 있다"며 "금리인하기와 더해지면서 올해 갈아타기 등을 통해 대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케이뱅크는 이같은 실적에 따라 지난 12월 이사회를 열고 기업공개(IPO) 추진 안건을 의결했다. 케이뱅크의 상장 도전은 이번이 세번째다. 케이뱅크는 지난 2023년 2월 투자심리 위축 등 영향으로 한 차례 IPO를 연기했고 지난해 10월에는 수요 예측 부진을 이유로 또 다시 상장을 미뤘다.

/나유리 기자 yul15@

서울 '국평' 평균 14억 돌파... 강남3구는 20억 안착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4600건
서초구 국평 평균 매매가 31.4억
도봉·강북구는 7억 이하에 거래

지난달 서울 국민평형(전용 84㎡) 아파트 매매가가 평균 14억원을 넘어섰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국평 아파트는 20억원을 돌파했다. 일부 아파트는 30억원을 웃도는 거래도 나타났다.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600건을 넘어서면서 주택 시장에 다시 온기가 도는 모습이다.

17일 부동산정보업체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월 서울 국평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14억3895만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도심 지역에서는 15억원 이상 거래가 활발했으며 강남3구에서는 20억원 이상 가격

대에서 거래가 이뤄졌다.

서초구는 국평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가 31억4043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래미안원베일리', '반포자이' 등의 고가 아파트 거래가 이어지면서 평균 가격을 끌어 올렸다.

강남구가 27억634만원, 송파구가 20억2813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 삼성동 '래미안라클래스' 등이 30억원 이상에 거래됐다. 송파에서는 잠실 3대 대장주(엘스·리센츠·트리지움) 등의 단지가 20억원대에 거래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용산구(19억1413만원) ▲종로구(18억7190만원) ▲성동구(16억1137만원) ▲마포구(15억8311만원) 등의 지역에서도 국민평형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이 15억원을 넘어섰다. 반면 도봉

구(6억1529만원), 강북구(6억8257만원)는 국민평형 아파트가 7억원 이하에서 거래됐다. 서울 내에서도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되는 모습이다.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4600건을 넘어서면서 바닥을 다지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대출 금리 하락 전망, 규제 완화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잠실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해졌다. 규제 완화로 인해 실거주 및 투자 수요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강남 3구를 포함한 마포성(마포·용산·성동) 등 도심 지역에서도 거래가 증가하는 모습이다.

오는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전 주택을 매입하

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대출 규제 강화 전 자금 조달이 원활한 매수자들이 선제적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외곽 지역에서도 하락 매물이 일부 소진되면서 가격이 반등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지만 적극적인 매수세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주택 매수 심리가 도심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으나 수도권 외곽과 서울 변두리 지역에서는 추격 매수가 나타나지 않는 분위기다.

서울 아파트 시장의 회복이 전반적으로 확산될지 특정 지역 중심의 회복으로 그칠지는 향후 시장 흐름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 랩장은 "기준금리 변동성, 글로벌 경기, 정책 변화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주택 시장이 다시 조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전지원 기자 jiw13@

포스코이앤씨 국내 최초 수직증축 잠실 더샵루벤 준공

포스코이앤씨는 국내 최초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단지인 '잠실 더샵루벤'을 준공하고 지난 7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단지는 서울 송파구 송파동에 위치한 1992년에 준공된 성지 아파트를 수직증축으로 리모델링해 완성했다. 2020년 사업계획이 승인된 후 2022년 1월 착공해 총 38개월의 공사 끝에 새롭게 탄생했다. 기존 2개동 지하 2층~지상 15층, 298가구에서 지하 3층~지상 18층, 327가구로 변모했고 증가한 29가구는 일반 분양을 완료했다.

잠실 더샵루벤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3개층을 수직 증축한 단지다.

/전지원 기자

한화오션·삼성중 대규모 선박 수주... 조선업계 실적 '청신호'

친환경 선박 중심 수주 행진

한화오션 에버그린 6척 계약
삼성중 2조 규모 셔틀탱커 수주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이 나란히 대규모 선박 수주에 성공하며 조선업계의 수주 행진에 탄력이 붙고 있다. 국내 조선사들은 기술 혁신과 친환경 선박 개발을 무기로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쥐기 위한 경쟁을 펼치는 모습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세계 최대 해운사 중 하나인 대만의 에버그린으로부터 2만4000TEU급 LNG 이중연료추진 친환경 초대형 컨테이너선 6척을 수주했다.

이번에 수주한 컨테이너선은 길이 400미터, 너비 61.5미터 규모로 2만4000개의 컨테이너를 한꺼번에 운송할 수 있다. 특히 이 선박들에는 LNG 이중연료추진 엔진과 함께 축발전기 모터시스템(SGM), 공기유회환시스템(ALS) 등 한화오션의 최신 친환경 기술들이 대거 적용된다.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오른쪽)와 장연이 에버그린 회장이 LNG이중연료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 건조 계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화오션

이번 계약에서 에버그린이 LNG 이중연료추진 컨테이너선을 선택한 것은 환경 규제를 충족함과 동시에 연료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한화오션은 이번 계약을 계기로 에버그린과 첫 협력을 맺으며 신규 고객을 확보했다. 에버그린은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향후에도 신조 선박

발주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화오션 김희철 대표이사는 "한화오션의 기술력을 믿고 발주해 준 선주사에 감사드립니다"며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친환경 초대형 컨테이너선 시장을 지속적으로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삼성중공업도 원활한 수주를 이어가며 올해 수주 목표인 98억달러 중 16억달러의 수주고를 이미 달성했다.

삼성중공업은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로부터 셔틀탱커 9척을 수주했다고 17일 공시했다. 계약 규모는 총 1조 9355억원으로 지난 2023년 매출액의 25%에 달하는 규모이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인도할 예정이다.

셔틀탱커는 해양플랜트에서 생산한 원유를 해상에서 선적해 육상의 저장기지까지 정기적으로 실어 나르는 원유 운반선으로 해상 선적 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첨단 위치제어 장치'를 탑재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1995년 국내 조선업 최초로 셔틀탱커를 건조한 바 있다. 이번 수주를 포함해 2016년 이후 최근 10년간 전 세계에서 발주된 51척 중 29척을 수주함(57%)으로써 점유율 1위를 확고히 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최고의 기술력과 건조 경험을 기반으로 셔틀탱커 시장을 계속 선도해 나갈 것"이라며 "친환경선박과 FLNG 등 고부가 해양플랜트를 두 축으로 수주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렉서스 플래그십 SUV '디 올 뉴 LX 700h'. /렉서스코리아

렉서스 '디 올 뉴 LX 700h' 출시

렉서스코리아는 플래그십 SUV(스포츠티윌리티차량) '디 올 뉴 LX 700h'를 공식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디 올 뉴 LX 700h'는 '어떤 길에서도 편안하고 고급스럽게'라는 콘셉트로 지난 1996년 개발된 렉서스 최초의 SUV다.

이번에 선보이는 4세대 모델은 기존 LX의 '신뢰성', '내구성', '오프로드 주행 성능'을 계승하면서도 새롭게 개발된 병렬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개량된 GA-F 플랫폼을 도입해 한층 더 정교한 렉서스 드라이빙 시그니처를 실현했다.

또한 '디 올 뉴 LX 700h'에는 개량된 GA-F 플랫폼을 적용해 저중심화, 경량화, 차체 강성 향상 등 차량의 기본 성능을 한층 강화했다.

렉서스 '디 올 뉴 LX 700h'의 판매 가격은 ▲4인승 VIP 1억9457만원(부가세 포함, 개별소비세 3.5% 적용 기준) ▲5인승 오버트레이 1억6587만원 ▲7인승 럭셔리 1억6797만원이다.

/이승용 기자 lsy2665@

K-가전, 고효율 HVAC 솔루션 강화... 유럽시장 본격 공략

(냉난방공조)

ISH 2025

삼성 'EHS 모노 R290' 등 전시 LG 주거 형태에 따른 솔루션 제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고객 맞춤형 냉난방공조(HVAC) 솔루션을 앞세워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선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17~21일(현지 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 냉난방공조 전시회인 'ISH 2025'에 참가한다. 유럽연합(EU)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탈탄소·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양사는 유럽 지역에 특성화된 고효율 히트펌프 냉난방시스템을 나란히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약 489㎡ 규모의 전시장을 마련하고 고효율 히트펌프 '슬림 핏 클라이밋허브(SlimFit ClimateHub)', 'EHS 모노(Mono) R290' 등 EHS 제품을 전시한다. '슬림 핏 클라이밋허브'는 200L 전용 물탱크가 탑재된 가정용 히트펌프 EHS 제품이다. 7형 터치스크린 기반 'AI 홈'을 탑재해 편의성을 높였다. 'EHS 모노 R290'은 자연냉매인 R



삼성전자 모델이 'ISH 2025'에서 고효율 냉난방 시스템 히트펌프 '슬림 핏 클라이밋허브'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290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강력한 성능으로 난방을 위해 최대 75도의 고온수를 공급한다.

삼성전자 전시장에는 기기간 연결 플랫폼 '스마트싱스(SmartThings)'를 통한 연결 편리성을 소개하는 전시 코너도 마련됐다.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삼성전자 가전과 스마트싱스로 연결된 전구·태양광 패널 등이 서로 연동해 집안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시나리오를 경험할 수 있다.

LG전자는 '혁신적 난방의 개척자'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총 492㎡ 규모의

전시장을 꾸렸다. 주거용부터 상업용까지 주거형태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히트펌프를 앞세웠다.

LG전자의 대표 주거용 히트펌프는 '써마브이(Therma V)'다. 이 제품은 외부 공기에서 얻는 열에너지를 활용해 실내 냉난방 및 온수를 공급하는 '공기열원 히트펌프(AWHP)'다. 화석연료를 태운 열로 난방하는 기존 보일러에 비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으며 LG전자가 자체 개발한 고효율 인버터 스크롤 컴프레서를 적용해 에너지 효율도 우수하다.



LG전자가 지구온난화지수(GWP)가 3에 불과한 자연냉매(R290)를 적용한 히트펌프 '써마브이 R290 모노블록'을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LG전자는 다세대 주택을 위한 고효율 히트펌프 '써마브이 모노블록 G'도 함께 전시해 주거형태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을 제시한다. 상업용 솔루션으로는 기존 냉매(R410A)보다 지구온난화지수(GWP)가 30% 수준인 R32 냉매를 적용한 '인버터 스크롤 칠러'와 '멀티브이 아이(Multi V i)' 등을 소개한다. 멀티브이 아이는 고성능 AI 엔진을 통해 사람이 없을 땐 알아서 절전하고 상황에 따라 냉방 세기를 조절해 실내를 쾌적하게 해주면서 전기료 절감에 도움을 준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삼성전자 '아트 바젤 홍콩' 컬렉션 삼성 아트 스토어 전시

삼성전자가 2025 세계 최대 프리미엄 아트 페어 '아트 바젤 홍콩' 컬렉션 23점을 '삼성 아트 스토어'에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이 컬렉션에는 중국 현대미술의 거장인 주진스와 홍콩 컨템포러리 작가 티코 리우 등 아트 바젤이 선정한 작가들의 대표 작품들로 구성했다. 최지복과 배윤환 등 한국 작가들의 작품들도 포함된다.

아트 바젤은 근현대 미술을 전시하는 세계 최대 아트 페어로 매년 홍콩, 바젤, 파리, 마이애미에서 열린다.

삼성전자는 2025년 아트 바젤의 공식 디스플레이 파트너로서 향후 아트 바젤의 '바젤 컬렉션'과 '파리 컬렉션'도 삼성 아트 스토어에 선보일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아트 바젤 홍콩'에서 '경계가 없는, 아트에 뛰어든다' 콘셉트의 '아트큐브' 라운지를 마련한다. 더 프레임·마이크로 LED·Neo QLED 8K 등 주력 TV 라인업을 통해 '삼성 아트 스토어'로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남영 기자

HD현대중, 운항선박 MRO 신기술 개발

세계 최초

'3D 프린팅 기술' 평가·시연 성공

HD현대의 조선 부문 계열사인 HD현대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운항 중인 선박에서 긴급 유지·보수·정비(MRO)를 수행할 수 있는 3D프린팅 신기술을 개발했다. 지난해 미국선급(ABS)으로부터 '운항 선박 내 신속 MRO 대응을 위한 3D프린팅 시스템'에 대해 NTQ

(신기술 사용 적합성 인증) 2단계 승인을 받은 데 이어 디지털 기술 경쟁력을 한층 부각시키는 모습이다.

HD현대중공업은 목표에 위치한 HD현대삼호에서 '운항 선박 내 유지보수 부품 자체 제조를 위한 3D프린팅 융합 실증기술(제품명: 3D프린팅 디지털 워크샵)'에 대한 최종 평가 및 시연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은 이번 실증을 통해 실제 선상에서 3D프린팅 장비를 운용하는 것은 물론, 선박 운동 및 진동 저감 장치에 대한 기술도 함께 검증했다. 아울러 3D프린팅 기술에 대한 상업화도 본격 시작할 예정이다. 다양한 부품에 대한 디지털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항구와 선박 간 네트워킹을 구성해 필요한 부품을 원격으로 주문, 인근 항구에서 손쉽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HD한국조선해양과 조선용

탄소강 분말소재 개발 등 소재의 다변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3D프린팅이 가능한 부품의 폭을 확대하는 동시에 가격 절감 등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실증을 통해 조선산업에서의 3D프린팅 기술의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선박 MRO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IRA 수혜 본격화... 한화·OCI, 美 태양광서 반등 가속페달

미국 태양광 설치 50GW, 21% ↑ 한화, 시장 점유율 1위 '수혜' 기대 OCI, 현지 대형 프로젝트 '시동' 중 수요 둔화에 한국산 반사이익

미국 내 태양광 설치 수요가 증가세를 보이며 업황이 다시 활기를 찾고 있다.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혜택과 수요 확대가 맞물리면서 올해 설치량 증가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이에 국내 태양광 기업들도 미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며 반등을 모색하는 데 한창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태양광 설치량은 총 50GW(기가와트)로 전년 대비 21% 상승했다. 특히 지난 4분기 설치량은 총 18.8GW로 전년 대비 32% 늘어났다. 이러한 성장세는 IRA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이 본격적으로 작용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반면 중국태양광산업협회는 올해 자



OCI홀딩스의 미국 자회사 OCI에너지가 개발한 태양광 프로젝트 전경. /OCI홀딩스

국 태양광 설치 수요가 215~255GW로 예상돼 지난해 (278GW)와 비교해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놓았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 축소를 발표하면서 수요 둔화가 예측되기 때문이다. 중국의 태양광 셀 및 모듈 제조업체들

로서는 내수 시장 위축이 불가피하고 업계 구조조정도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내 공급 과잉이 풀리면서 원재료 및 제품 가격이 반등하고 미국 내 한국 제품의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내 태양광 산업을 둘러싼

대의 환경도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각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기지 구축에 속도를 내는 등 사업기회를 발굴하는 데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한화솔루션의 태양광 사업부 생산 및 매출의 약 90%는 미국에서 발생하는데 최근 미국 태양광 수요가 개선되면서 성장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가정용 태양광 시장 점유율이 31%로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이같은 시장 지배력이 추가적인 수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정에 분산형 태양광을 설치해 대여해주고 투자세액공제(ITC) 및 보너스 혜택을 챙기는 TPO 사업을 영위 중인 점도 수익성 개선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꼽힌다. 한국은 일반 가정집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례가 많지 않으나 미국에서는 주택용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해당 사업 효과가 커질 것으로 평가된다.

OCI홀딩스 또한 미국 내 태양광 산업

수익 계열화에 속도를 내는 만큼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OCI홀딩스 미국 자회사 OCI에너지는 이스라엘 태양광 회사인 아라바 파워와 260MW 규모의 선로퍼 프로젝트 합작법인 설립 협약을 체결했다. 선로퍼 프로젝트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남쪽 와튼 카운티 약 210만평 부지에 개발되는 대형 태양광 발전소다. 이를 통해 IRA 혜택으로 30% 세액공제를 지원받고 에너지저장장치 보너스 10%가 더해져 최대 40%에 달하는 투자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중국산 제품 제재가 강화되면서 한국산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다만 트럼프 정부가 반도체 지원법(칩스법)을 재검토해 투자 보조금을 축소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 태양광 모듈용 웨이퍼도 반도체 웨이퍼에 포함될 만큼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중기중앙회 2題

‘中企 빛낸 얼굴들’ 디지털로 재탄생

여의도에 ‘중소기업 명예의 전당’ 제막 산업훈장·자랑스런 중소기업인 등 383명

금탑을 비롯해 산업훈장 등을 받은 모범 중소기업인들을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1층 로비에서 디지털 ‘중소기업 명예의 전당’ 제막식을 개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중소기업 명예의 전당’에 헌액한 중소기업인 등 100여 명이 행사에 참석했다.

‘중소기업 명예의 전당’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위해 공헌한 중소기업인의 업적을 기리고 중소기업인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07년부터 ‘중소기업을 빛낸 얼굴들’이라는 이름으로 모범 중소기업인의 흉상 동판을 전시해 오던 것을 디지털 전환을 통해 탈바꿈했다. 이날 헌액한 중소기업인은 2010년 금탑훈장

을 받은 최연장자(41년생)인 권혁홍 신대양제지 회장, 여성기업인인 우신피그먼트 장성숙 대표,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상 수상자인 배조웅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 등 산업훈장 수훈자,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중기중앙회 역대 회장 그리고 명문장수기업 대표 등 총 383명이다.

김기문 회장은 기념사에서 “명예의 전당에 헌액한 중소기업인들은 IMF, 금융위기 등 역경의 순간을 극복하고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 모범 중소기업인”이라며 “이는 단순한 기념의 장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책임질 2세 기업인에게도 귀감이 되는 공간이 되고 더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영주 장관은 축사에서 “늘의 대한민국에게 가장 중요한 것도 과거와 현재를 잘 이끌어왔던 중소기업인들의 혁신과 열정의 DNA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전국 10개 권역 회장단 새 출범

제11대 지역 중소기업회장단 위촉식 ‘역할 중요... 지자체와 협력 강화’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10개 권역을 대표하는 지역회장단을 새로 꾸렸다.

중기중앙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11대 지역중소기업회장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지역중소기업회장단에는 박종석 서울동북부건설유통사업조합 이사장(서울), 허현도 부산광역시발전추진사업조합 이사장(부산울산), 성태근 대구경북자동차경매조합 이사장(대구경북), 임경준 광주전남아스콘공업조합 이사장(광주전남), 황현배 인천산업유통사업조합 이사장(인천), 설필수 반월표면처리사업조합 이사장(경기), 최선운 강연도연식품조합 이사장(강원), 김병진 한국목재공업조합 이사장(전북), 노현태 울산경남광고물제작공업조합 이사장(경남), 성상훈 제주아스콘사업조

합 이사장이 이름을 올렸다.

‘지역중소기업회장단’은 지역 중소기업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7년부터 운영해 왔다.

임기 2년 이내의 무보수 명예직으로 각 지역 정회원(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청 또는 추천받은 자를 대상으로 전형위원회 심의 후 중기중앙회장이 위촉한다.

지역회장단은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오피니언 리더로서 중·소상공인 및 협동조합의 현안 해소와 위상 제고 역할을 수행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중소기업 활력 회복을 위해 지역회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중소기업이 겪는 현장으로 개선 및 주요 정책과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국회 등과 소통·협력 관계를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대한항공, 공항라운지·기내좌석 ‘고급화’ 나선다

인천공항 라운지 전면개편 ‘프리미엄 이코노미’ 신설

대한항공이 공항 라운지를 개편한다.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앞두고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고급화 전략’의 일환이다. 이코노미와 비즈니스 좌석의 중간 개념인 ‘프리미엄 이코노미’석도 일부 항공기에 도입한다.

대한항공은 17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기존라운지를 전면 개편하고 공항 확장 구역에 라운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공항 1터미널에 있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통합으로 인해 2터미널로 이전하는 것에 대비하는 조치다.

대한항공은 우선 인천공항 확장공사 가 최근 마무리되며 만들어진 공항 동·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대한항공 일등석 라운지 예상 이미지. /대한항공

서편 날개 구역에 각각 ‘프레스티지 가든 라운지’를 구축한다. 현재의 프레스티지 동편 라운지와 마일러 클럽 라운지는 기존 위치에서 확장·개편하고 8월부터 고객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공항 서편에 위치한 일등석 라운지와 프레스티지 라운지도 대규모 개편 작업을 거쳐 내년 4월 개장한다.

라운지 확장·개편이 모두 마무리되면 인천공항에서 운영하는 대한항공 라운지는 4곳에서 6곳으로 늘어난다. 총면적은 5105㎡에서 1만 3385㎡로 약 2.6배 넓어지며 좌석 수도 900여 석에서 1600여 석으로 1.8배 가량 증가한다. 아시아나항공 라운지는 내년 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완전한 통합을 앞두고 순차적으로 문을 닫을 전망이다.

최근 수요가 늘어나는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도 도입한다. 아시아나항공은 구간 일반석보다 다리 공간이 7~10cm가량 더 넓고, 라운지 이용 등의 혜택이 있는 ‘이코노미 스마티움’이란 좌석을 운영해왔는데, 통합 대한항공이 이를 도입하는 것이다. 첫 도입 기종은 보잉 777-300ER 11대로, 올해 하반기부터 일등석 대신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을 설치할 예정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2년 연속 ‘전기차 충전 보조사업자’ 선정

SK이노 E&S 아이파킹

전국 8900곳 주차장 기반 본격화

SK이노베이션 E&S의 전기차 충전·주차 플랫폼 계열사 아이파킹이 환경부 주관 ‘2025년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사업’의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급속·완속 충전 분야에서 수행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올해는 선정된 사업자 수가 대폭 줄어든 가운데 거둔 성과다.

이번 선정으로 아이파킹은 공동주택,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에 완속 충전시설을, 상업시설, 물류센터,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급속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아이파킹은 표준화된 고품질 시공, 실시간 충전기 모니터링, 전국 단위 유지보수 체계 등 운영 역량을 인정받아



서울 종로구 'SK그린캠퍼스' 내 아이파킹 전기차 충전소 전경. /SK이노베이션 E&S

이번 사업에 선정됐다. 이를 바탕으로 업무·상업·문화·공공시설 등 전기차 운전자의 생활 동선 내에서 자연스럽게 충전할 수 있는 ‘목적지 충전’ 인프라 확대에 집중할 계획이다.

아이파킹은 전국 8900여 개 지역·제휴 주차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전기차 충전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이혜민 기자 hyem@



칠레 최정상 아이콘 와인
몬테스

中 바이두, AI 모델 2종 공개… “딥시크 수준 성능에 절반값”

‘어니 4.5’ ‘어니 X1’ 출시
텍스트·이미지·오디오·비디오
콘텐츠 통합·이해 능력 뛰어나
바이두 플랫폼 ‘첸판’에서 접근

압도적인 가성비 자랑하는 인공지능(AI) 모델을 선보인 중국 딥시크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중국 빅테크 기업인 바이두가 딥시크의 절반 비용에 유사한 성능을 제공하는 AI 모델을 공개해 다시 한번 전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중국의 빅테크 기업 바이두는 지난 16일 최신 인공지능(AI) 모델인 ‘어니(ERNIE) 4.5’와 ‘어니 X1’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바이두는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인공지능 모델들은 딥시크의 ‘딥시크 R1’, 오픈AI의 ‘GPT-4.5’와 성

능이 유사하거나 뛰어나며, 가격은 훨씬 저렴하다고 주장했다.

바이두에 따르면 어니 4.5는 자체 개발한 멀티모달 기반 AI 모델로, 텍스트·이미지·오디오·비디오 콘텐츠를 통합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멀티모달 AI는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의미한다.

바이두는 “어니 4.5는 이해·생성·추론·기억 능력이 향상됐고 환각 현상이 감소했으며, 논리적 추론 및 코딩 기능이 개선됐다”며 “높은 지능과 상황 인식 능력을 갖춰 인터넷 밈(온라인상 유행하는 콘텐츠)과 풍자만화를 쉽게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바이두는 어니 4.5가 DROP(독해 및 추론), CLUEWSC(중국어 자연어 이해

평가) 등의 벤치마크에서 GPT-4.5를 능가하는 성능을 보였으며, 가격은 GPT-4.5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어니 X1은 바이두 최초의 멀티모달 심층 사고 추론 모델이다. 바이두는 “어니 X1은 딥시크 R1과 동등한 성능을 반값에 제공한다”면서 “특히 중국어 지식 질의응답, 문학 창작, 원고 작성, 논리적 추론, 복잡한 계산에 탁월하다”고 덧붙였다. 어니 X1은 ▲고급 검색 ▲주어진 문서에 대한 질문과 답변 ▲이미지 이해 ▲AI 이미지 생성 ▲코드 해석 등 다양한 도구를 지원한다.

기업 사용자와 개발자는 바이두의 AI 클라우드 플랫폼인 ‘첸판(Qianfan)’을 통해 어니 4.5의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에 직접 접근할 수 있으며, 입력 가격은 100만토큰당 최저 4위안(약 800원), 출력 가격은 16위안

(약 3200원)이다. 어니 X1 서비스도 곧 첸판 플랫폼에서 제공될 예정이다. 입력 및 출력 가격은 각각 100만토큰당 2위안, 8위안으로 책정됐다.

바이두는 “어니 4.5와 어니 X1의 출시와 함께 바이두는 AI,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AI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더 스마트하고 강력한 차세대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바이두는 중국 빅테크 기업 중 가장 먼저 챗GPT 스타일의 챗봇을 출시했음에도, 어니 대형 언어 모델(LLM)의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AI 시장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 딥시크 모델에 필적하는 새 인공지능 모델을 내놓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권태혁 HS오퍼레이션 대표(왼쪽)와 박재강 LG유플러스 기업파트너담당장이 실내 배송로봇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HS오퍼레이션 실내 배송로봇 공급

LG유플러스가 숙박시설 위탁운영 기업 HS오퍼레이션과 손잡고 아늑호텔에 실내 배송로봇을 공급한다고 17일 밝혔다.

HS오퍼레이션은 전국 120여 호텔을 운영하는 숙박 운영 전문 기업이다. LG유플러스는 이번 협력으로 인천 구월점 아늑호텔을 시작으로 연내 전 지점에 실내 배송로봇을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실내 배송로봇은 이동통신으로 연결돼 호텔 내 엘리베이터와 연동해 움직이며, 객실 내 에메니티와 룸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고객은 비대면 서비스로 더 편리하고 안전한 투숙 경험을 할 수 있으며, 호텔은 인력 운영을 효율화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김서현 기자

쿠팡플레이 ‘LIV 골프’ 티켓 예매

쿠팡플레이가 17일 ‘LIV 골프 코리아’ 티켓 예매 정보를 공식 발표했다.

LIV 골프 코리아는 존 램, 브라이언 디샬보, 브룩스 켈프 등 세계 정상급 골퍼들이 출전하는 프로 골프 리그 ‘LIV 골프’의 첫 한국 대회로, 오는 5월 2~4일 인천 잭 니클라우스 골프 클럽 코리아에서 진행된다.

첫 티켓 오픈은 이날 19일 오후 8시다. 이날 모든 티켓에 10% 할인이 적용되는 1차 얼리버드 예매가 시작되며, 라운드당 1매의 경품 응모권과 공식 기념품 등이 제공된다.

/김현정 기자

AI개발에 필수 ‘학습 데이터세트’ 인프라 구축 나서

KTL, AI 데이터 품질 국제표준 개발
지난달 국제표준화기구 공식 출판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데이터 기초 체력 다지기’에 힘을 쏟고 있다. AI 개발에 필수적인 학습 데이터세트 구축을 위한 품질인증 제도를 출판하고 기존 ‘AI 허브’를 통해 제공되던 데이터의 유통과 활용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17일 IT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학습 데이터세트와 관련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품질인증과 연구 지원부터 제공 체계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이날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김경민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와 공동으로 AI 데이터 품질 국제표준을 개발해 지난 2월 국제표준화기구(ISO)에 공식 출판했다고 발표했다. 출판된 국제표준은 AI와 데이터 분석에 활용되는 데이터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국제 지침인 ‘ISO/IEC 5259-5:2025’



Chat GPT가 생성한 학습 데이터 관련 이미지.

다. 이번 국제표준 개발은 AI 및 데이터 분석에서 신뢰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름에 따라, 체계적인 품질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해당 표준은 AI 및 데이터 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기준이다. 데이터 수집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적용 가능한 품질을 유지하고 적절한 통제 및 운영 원칙을 제공한다.

송태승 KTL 디지털산업본부장은 “이번 ‘ISO/IEC 5259-5’ 표준 출판은 데이터 기반 산업 환경에서 신뢰성 있

는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값진 성과”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데이터 품질 표준과 별도로, 학습용 데이터의 체계적인 제공을 위한 통합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생성형 AI 개발에서 고품질 데이터의 확보 및 제공 방식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2017년부터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을 추진해 왔다. 현재까지 833종의 AI 학습용 데이터를 AI 허브에서 개방했으며, 올해는 70종의 신규 데이터를 추가한다.

/김서현 기자 seoh@

3GPP 기술총회서 韓 의장 첫 당선 성과

RAN 총회 의장에 삼성 김윤선
SA 총회 부의장에 LG 김래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표준을 개발하는 국제단체인 3GPP가 10일부터 14일까지 인천에서 개최한 ‘6G 워크숍’과 ‘기술총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고 17일 밝혔다.

3GPP는 TTA 등 전세계 7개 표준화 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이동통신 표준개발기구로 WCDMA, LTE, 5G에 이어 2030년 경 상용화 예정인 6G 기술 표준도 개발하고 있다.

이번 3GPP 기술총회에서는 삼성전자 김윤선 마스터가 ‘무선접속망(RAN)’ 총회 의장에, LG전자 김래영 책임연구원이 ‘서비스 및 시스템(SA)’ 총회

부의장에 선출됐다. 총회별 의장은 1명, 부의장은 3명이며 임기는 2+2년으로 통상 4년을 수행한다. 우리나라가 3GPP 기술총회 의장에 당선된 것은 최초다.

6G 표준화 작업을 위한 본격적인 첫 발이었던 3GPP 6G 워크숍도 의미있는 성과가 도출되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6G 기술 관련해 ▲인공지능·클라우드 내재화 ▲소프트웨어 기반 네트워크 등이 제시되었다.

국내 이동통신 3사와 삼성전자, LG전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국내 산업계가 한목소리로 강조한 ▲AI와 6G의 결합 ▲에너지 절감 기술 등이 6G의 핵심 연구항목에 포함되어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

/김서현 기자

네이버 커넥트재단, AI·SW교육 역량 강화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협력

네이버 커넥트재단이 초·중·고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미래 AI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협력한다.

네이버 커넥트재단은 지난 14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지역 AI·SW 교육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커넥트재단은 전국 초·중·고학생 3만 명 대상으로 ‘소프트웨어야 놀자’ 프로그램을 운영할 강사 800명을 대상으로 AI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네이버 커넥트재단은 이번 연수에



네이버 커넥트재단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14일 AI·SW 교육 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수진 본부장(왼쪽), 네이버 커넥트재단 조규찬 이사장. /네이버

지원한 강사들이 소프트웨어야 놀자 커리큘럼을 이해하고 원활하게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2주간 온·오프라인 교육과 전문가 멘토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KT알파 쇼핑 2주간 ‘패션위크’

KT알파 쇼핑이 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2025 S/S 시즌 패션위크를 연다.

쇼호스트 이수정의 ‘수정샵’, 최현우의 ‘초이스’ 등 패션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신상품을 론칭하고, 봄·여름 시즌에 활용하기 좋은 패션 아이템을 특집 편성한다.

패션위크 기간 내 구매고객 대상 매일 추첨을 통해 ‘골드바 1돈(14명)’을 증정한다. 패션위크 오프닝과 피날레 방송에서는 추첨을 통해 ‘신세계 상품권 5만 원권(6명)’을 증정하고,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모바일 구매 시 10% 적립과 최대 7% 카드 청구할인을 제공한다.

KT알파 쇼핑은 패션위크 기간 패션에 특화된 기획 프로그램을 정규 방송 외 추가 집중 편성하며 2배 가까이 방송을 확대한다.

/김서현 기자

엔비디아 HBM 공급 귀추... 삼성전자 '6만전자' 기대감

삼성전자 5만7600원, 5.3% ↑
엔비디아 GTC 기대감 반영된 듯
美 관세, 1분기 실적감소 예상 등
반도체 회복 예상에도 우려 남아

“뜻이 ‘오만전자(삼성전자 5만원)’에서 이룬 것 같이 ‘십만전자’도 이루어지리라.”

최근 직장인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에서 이른바 ‘삼기도문(삼성전자+기도문)’이 회자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6만원대를 향해 질주하자 개미 투자자들이 ‘하락은 막고 상승을 기원한다’는 간절함을 담아 만든 글이다.

동학개미(국내 주식투자자)의 기도문이 통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시장 전문가들은 엔비디아 대상 HBM(고대역폭메모리) 공급 이슈 해소 여부와 시점에 따라 주가의 방향과 상승 강도가 달라질 것으로 본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



/삼성전자

는 전 거래일 대비 5.30% 상승한 5만 7600원에 마감했다.

17일(현지시간)부터 21일까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리는 엔비디아 GTC 2025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엔비디아는 최신 인공지능(AI) 기술을 발표할 예정이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19일 AI

와 가속 컴퓨팅 기술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한다.

삼성전자는 이번 행사에 참가해 최신 AI 메모리와 각종 솔루션을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시장에서는 젠슨 황 CEO가 삼성전자의 HBM 관련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GTC에서도 젠슨 황 CEO가 삼성 HBM 관련 질

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후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차세대 그래픽처리장치(GPU)와 HBM 공급망에서 역할을 확대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HBM3E를 공급 중이며, 삼성전자는 범용 제품에만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차세대 GPU ‘루빈’에 HBM4가 탑재될 예정인 만큼 삼성전자의 점유율 확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앞날은 가시밭길이다. D램 등 레거시 반도체 수요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되고 있지만, 미국 트럼프 정부의 반도체 관세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

HBM 매출 급감 및 낸드 업황 악화, 비수기 진입으로 올 1분기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이 예상되는 점도 부담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이 제시한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실적 추정치는 5조2901억

원으로 작년 동기(6조6060억원) 대비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서승연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실적 저점 이후 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 고객사 메모리 재고 조정 마무리와 견조한 서버 수요로 전사 분기 증익세를 보일 것”이라며 “현 주가는 12개월 예상 P/B(주가순자산비율) 기준 0.88배로 밸류에이션(평가가치) 매력도 높다”고 밝혔다.

외국인 ‘팔자’도 부담이다. 외국인은 이달 들어 이날까지 삼성전자를 1200억 원 가까이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지난해 8월 이후 이달까지 8개월 연속 삼성전자에 대한 순매도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달 말까지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지속될 경우 역대 3번째로 긴 순매도 기록을 세우게 된다. 역대 1위는 2006년(2006년 2월~2007년 3월) 기록했는데 당시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14개월 연속 순매도했다. 2위는 2020년 기록한 9개월 연속 순매도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주식투자자 1423만명... 전년비 0.5% 증가

예탁결제원, 작년 말 결산법인 현황
삼성전자 투자자 약 567만명 '1위'
이어 카카오·네이버 등 상위권에

지난해에도 국내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상장법인 가운데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는 약 567만명으로, 다른 종목들과 비교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1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결산 상장법인 2687곳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는 총 1423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말보다 0.5% 증가한 수준이다. 개인 투자자가 1410만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법인은 5만6000명, 외국인은 3만명으로 나타났다.

개인 투자자는 평균적으로 5.79개 종

목에 투자했고, 1인당 평균 보유 주식 수는 4112주였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각각 평균 9.79개, 7.12개 종목에 투자한 것으로 집계됐다.

종목별로 보면 삼성전자의 소유자 수는 전년 대비 8.7% 증가한 567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카카오(169만명), 네이버(91만명)가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55만명으로 가장 많은 투자자 수를 기록했고, 에코프로(44만명), 카카오게임즈(24만명) 등이 뒤를 이었다.

개인 투자자를 연령별로 분석하면 50대가 316만명(22.4%)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이 보유한 주식 수는 201억주(34.6%)에 달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732만명(51.9%), 여성이 678만명(48.1%)이었다. 소유 주식 수 기준으로

는 남성 416억주(71.8%), 여성 164억주(28.2%)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거주 투자자가 370만명(26.4%)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341만명), 부산(86만명)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세종특별자치시의 투자자는 11만4000여명(0.8%)으로 가장 적었다. 인구 대비 투자자 수와 보유 주식 수는 서울이 각각 36.6%, 511억주(50%)로 가장 많았다.

거주지와 성별, 연령을 종합할 때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 수원시 50대 여성(4만4799명), 경기 수원시 40대 남성(4만2943명), 경기 용인시 50대 여성(4만2519명) 순이었다. 보유 주식 수 기준으로는 서울 강남구 50대 남성(13억 9088만주)과 60대 남성(10억 216만주)이 가장 많았다.

/원관희 기자 wkh@



김태우 하나자산운용 대표이사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진행된 '2025년 뉴시니어 TDF·ETF'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

하나자산운용, TDF·ETF 사업 강화

퇴직연금 시장 공급자 자리매김 일한
1조 이상 '메가 ETF' 시장진입 목표

하나자산운용이 퇴직연금 시장의 핵심 공급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타깃데이트펀드(TDF)와 상장지수펀드(ETF) 사업을 강화한다.

하나자산운용은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TDF·ETF 시장을 타깃으로 한 회사의 성장 방향을 발표했다. 김태우 하나자산운용 대표는 “하나자산운용이 짧은 시간 안에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시장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속도감 있게 공급하고 차별화된 운용 전략을 펼친 덕분”이라며 “올해 글로벌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더 큰 성장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하나 더넥스트 TDF’의 운용 경과 및 향후 방향, 신규 상장되는 ‘1Q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ETF’ 소개와 함께 하나자산운용의 ETF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하나자산운용은 TDF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며 경쟁사를 추격하고 있다. 지난해 출시한 ‘하나더넥스트 TDF’는 2월 18일 기준 C-f 클래스 누적 수익률이 8~11%를 기록하며 각 빈티지에서 수익률 1위를 차지했다. 권정훈 하나자산운용 운용부문 최고투자책임자(CIO)는 “TDF 6개 빈티지(2030·2035·2040·2045·2050·2055) 모두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며 “타사 주요 티어 대비 5% 이

상 격차를 벌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TDF 성과는 글로벌 주식 EMP(ETF Managed Portfolio) 운용 역량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하나더넥스트 TDF는 해외 주식은 환노출 전략을, 해외 채권은 환헤지 전략을 채택했다.

지난해 ETF 브랜드 ‘1Q’를 출시하고 상품 라인업을 확충하며 시장 확대에 나선 하나자산운용은 ETF 설계와 운용 방식에서 차별화를 모색하고 있다. ‘1Q’는 출시 8개월 만에 AUM 1조 3580억원을 기록하며 연간 248%의 성장률을 보였다.

김승현 하나자산운용ETF·퀀트솔루션본부장은 “‘1Q 미국 S&P500 ETF’는 3월·6월·9월·12월 월중(15일) 분배 구조를 적용해 기존 월말(30일) 지급 상품과 차별화했다”며 “액면가는 약 1만 원으로, 경쟁 상품 대비 절반 수준”이라고 소개했다. 총보수도 0.0055%로 국내 상장된 S&P500 ETF 평균 대비 1/7 수준이며, 운용보수는 0.001%로 업계 최저 수준이다. 이 상품은 18일 상장된다.

끝으로 하나자산운용은 ‘연금 투자’에 집중하며 1조원 이상의 ‘메가 ETF’ 시장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대표는 “규모의 경쟁, 범위의 경쟁, 혁신적인 상품을 바탕으로 퇴직연금 사업에서 핵심 공급자가 될 것”이라며 “은퇴 이후 고정 수입이 없는 뉴시니어들을 위한 맞춤형 상품을 지속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韓 기업, 주주보호·주주환원 G20국 최하위 수준

한은, 주주환원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성장성·안정성 양호, 기업가치 최하위

배당금이 높아질수록 기업가치는 올라가지만, 활발한 투자활동을 하지 않고 배당금만 높이는 기업은 기업가치 상승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장 속도가 빠른 산업의 경우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것보다 자본적 지출(투자)을 통한 수익성·성장성 개선이 기업가치를 높이는 데 보다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BOK 이슈노트: 주주환원 정책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성장성·안정성은 양호한 수준이나 기업가치는 G20 회원국 16개국 가운데 최하

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증가율로 보면 우리나라 기업의 성장률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2.5%로 집계됐다. 튀르키예(9.4%), 인도(7.7%)와 같은 신흥국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일본(-0.1%), 영국(0%) 등 선진국에 비하면 높다. 부채비율도 우리나라의 경우 2.4%로 비교대상국가의 평균 수준(2.9%)보다 낮아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주주보호와 주주환원이다. 개별기업의 주주보호 점수를 바탕으로 국가별 평균점수를 산출한 결과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 주주보호 점수는 6.8로 16개국 중 12위를 기록했다. 기업별 편차도 1.70으로 영국(0.95)과 미국(1.05)보다 컸다.

주주환원도 최하위 수준이다. 순이익 중 배당금을 지급한 비율인 배당성향을 국가별 MSCI지수에 포함된 기업을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우리나라는 16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배당금 외에 자사주 매입까지 고려한 전체적인 주주환원(영업현금 흐름대비 주주환원) 규모는 0.2로 튀르키예(0.1)와 아르헨티나(0.1) 다음으로 저조했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은 주주보호, 주주환원과 함께 현금성 자산 비중도 낮았다. 통상 주주보호 수준이 낮은 경우 여유자금을 주주환원에 활용하지 않아 기업 내 현금성 자산이 많다. 우리나라는 투자 등을 위해 자본적 지출이 많아 현금성 자산 보유가 낮다는 분석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중부발전, 印尼서 수력발전 계약 신재생 에너지 우수 기술력 확산

인도네시아 신재생 인프라 시장
국내 기업 DL이앤씨와 동반진출
현지 수력발전 독보적 입지 다져

한국중부발전이 국내 기업 DL이앤씨와 협력해 인도네시아 신재생 인프라 시장에 동반 진출했다.

17일 중부발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시보르빠 수력발전사업 특수목적법인인 PT. Siborpa Eco Power가 DL이앤씨와 인도네시아 시보르빠 수력발전사업의 '기본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인도네시아 북수마트라 지역에 114메가와트(MW)급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기본설계와 발전소 건설 과정의 전반적인 관리가 포함된 중요한 프로젝트다.

중부발전은 이번 시보르빠 사업을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왓푸(45MW), 팡가무스(55MW) 수력발전사업에 이어 세 번째 수력발전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 수력발전 분야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다지며 해외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대한민국 공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DL이앤씨는 풍부한 해외 인프라 건설 역량을 바탕으로 중부발전이 주도



지난 14일 한국중부발전이 DL이앤씨와 인도네시아 시보르빠 수력발전사업 기본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 한국중부발전 김광일 기술안전본부장, 세번째 DL이앤씨 문병두 토목사업본부장) /중부발전

하는 시보르빠 수력발전사업에서 기본설계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담당한다. 또 해외 건설사와의 협업 경험을 살려 해외 건설사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계획이다.

중부발전과 DL이앤씨의 이번 협력은 인도네시아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고,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력은 최근 해외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 국내 건설사들의 가격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는 환경에서 공공기관인 중부발전이 국내 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하고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창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중부발전은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도우며 신재생에너지 분

야에서 더욱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김광일 중부발전 기술안전본부장은 "이번 협력은 대한민국의 우수 기술력을 해외 시장에 현실적으로 확산시키고, 인도네시아의 신재생 에너지 정착을 지원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해외 시장에서 성공적인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문병두 DL이앤씨 토목사업본부장은 "인도네시아 수력발전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미국·유럽 등 선진국 CM 업체가 독식해온 고부가가치 CM 시장에 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환경부, 2025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160억 투입해 2만대 보급 배터리교환형 보조금 확대

국가표준 충전시설 500기에 50억
배터리 상태정보 제공 차량 우대

환경부가 올해 전기이륜차(오토바이) 2만 대 보급을 목표로 총 160억 원 규모의 구매보조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500기 설치를 목표로 총 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2025년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운영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내 전기이륜차 시장은 배달업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대기오염 저감과 도심지 생활소음 측면에서 내연기관 대비 많은 이점을 지닌다.

환경부는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침'에 따라 연비, 배터리 용량, 등판능력(경사면을 오르는 능력) 등 성능이 우수한 차량에 보다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해, 국내에 보급되는 전기이륜차의 성능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이번 지침에서는 주요 내용이 다수

개선됐다. 첫째, 교환형 배터리 및 충전시설의 표준화를 유도한다. 올해부터 국가표준에 해당하지 않는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에는 설치비용을 미지원하여 불필요한 자원 낭비와 이용 비효율을 줄인다.

둘째,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의 지원을 확대한다. 구간 차량 가격에서 배터리 가격이 제외되기 때문에 성능에 따라 산정한 보조금의 60%를 지급해 왔다. 올해부터는 지원을 확대해 70%를 지급한다. 이는 사용자가 배터리를 직접 교체할 수 있어야 하는 교환형 특성상 배터리 용량을 높이기가 어려워 성능에 따른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경우 불리하다는 의견 등을 반영한 조치다.

셋째,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 및 이용자에게 배터리 상태정보를 제공하는 차량을 우대한다. 충전속도를 개선한 차량, 소유주가 배터리 상태정보를 차량 디스플레이, 이용자 앱 등을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구별 보조금 한도 내에서 보조금 추가지원(최대 10만 원)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송미령 "구제역 확산 빨라 추가발생 우려"

전남도청 가축방역 상황실 방문
신속한 백신 접종·소독 등 당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이 국내 축산농가 내 구제역의 확산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17일 소 구제역 바이러스가 검출된 전남 지역을 찾아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송 장관은 전남도청 가축방역 상황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구제역은 확산이 매우 빠른 가축질병으로, 전남도는 소와 염소 사육이 많아 백신접종이 미흡했던 농장을 중심으로 추가 발생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한 백신 접종과 철저한 소독 등 차단방역으로 조기 종식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14일 이후 전남 영암과 무안 한우농장에서 보고된 구제역 의심사례가 잇따라 양성으



로 판명됐다.

당국은 전남 지역 내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다른 지역보다 신속하고 빠짐없이 백신접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필요시 지역 관련 단체 등과 협업하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소·돼지 사육농장 등에 대한 임상예찰을 꼼꼼히 진행하고, 구제역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히 신고할 수 있도록 농장주, 수의사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소·염소 사육농장은 개방형 축사형태가 많아 방역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지역 내 우제류 사육농가에 대한 방역시설 일제점검 및 정밀검사 등을 실시해, 축산농가가 경각심을 갖고 차단방역을 해야 한다고 당국은 강조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물류데스크로 글로벌 패션 수출 지원"

산업부-코트라, 7개국서 운영
지역 특성 반영 맞춤형 물류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올해부터 전 세계 주요물류 거점 7곳(상하이, LA, 싱가포르, 두바이, 암스테르담, 첸나이, 멕시코시티)에 'K-물류데스크'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K-물류데스크는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정보조사, 실시간 물류 동향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물류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K-물류데스크의 첫 번째 지원사업

으로 상하이무역관에서 '글로벌 디자이너 패션 물류지원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디자이너패션은디자이너의 개성이 강조된 분야로, 주요 소비층인 MZ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국내 주요패션플랫폼들은 중국, 미국, 일본뿐 아니라, 태국에도 진출하며 K-패션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이번 사업은 상하이, 뉴욕, 도쿄, 방콕무역관과 협업체 우리 디자이너 패션기업들이 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코트라의 '해외공통물류센터'를 활용한 물류 인프라 및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국내 디자이너 패션기업들은 △재고관리 △배송 △반품 등 B2C 물류의 모든 과정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코트라는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플랫폼 바이럴 마케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KATRI시현연구원, 관세법인과 협력해 △시험인증 △통관 △FTA활용 등 수출에 필요한 전반적인 절차를 돕는다.

아울러 무신사, 현대백화점, W컨셉 등 국내 주요 패션플랫폼과 협력해 경쟁력있는 국내 패션 브랜드를 발굴하고, 글로벌 시장진출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촌 맞춤형 봉사' 참여단체 26개 선정

농어촌공사, 최대 3000만원 지원

한국농어촌공사가 17일 '2025년 농촌재능나눔사업(농촌맞춤형봉사활동 지원)'에 참여하게 될 26개 봉사활동 단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농어촌공사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직능·사회 봉사단체, 기업체, 대학생 봉사동아리 등 단체가 가진 전문 지식, 경험, 기술을 나누는 사업이

다. 공사는 선정된 단체에 활동비로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공사는 지난 2월 공모 이후 심사를 거쳐 26개 단체를 주했다. 선정된 단체는 봉사활동을 진행할 농촌 마을을 정한 뒤 오는 10월까지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해당 사업이 시작된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1137개 단체, 18만여 명의 봉사자가 농촌마을 약 1만1000곳에서 봉사에 참여했다. 봉사단체는 ▲기초

건강검진, 감염병 예방 교육 등 주민건강 증진 활동 ▲도배, 청소, 형광등 교체 등 생활환경 개선 활동 ▲중·고교생 진로 멘토링, 문화공연 등 교육·문화 증진 활동을 추진해 왔다.

김영배 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장은 "공사는 봉사활동을 통해 도시민이 자아를 실현하고, 농촌 주민이 마을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에 선발된 26개 단체의 봉사활동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또 이를 계기로 더 많은 분야의 봉사단체가 참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건설·별목업 31일까지 보험료 신고 접수

근로복지공단, 기한 넘기면 과태료

근로복지공단은 17일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 및 별목업 사업장은 이달 31일까지 보험료 신고·납부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건설업 및 별목업 사업장의 보험료 신고는 전년 보수총액을 신고해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고, 올해 보수총액을 신고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절차다.

공단은 보험료 신고·납부기한을 넘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와 확정보

험료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도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기를 당부했다.

보험료 신고방법은 고용·산재보험포털서비스(total.comwel.or.kr)를이요하거나 팩스·우편 또는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팩스가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모바일 앱 '터치(TOUCH!) 산재고용'을 설치하고 작성한 보험료신고서를 사진 찍어 '모바일 사진보내기' 메뉴로 전송도 가능하다. /세종=한용수 기자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부산시, 벤처 투자 2.8%로 '깡충'... 기술창업·모펀드로 확대

지난해 지역 벤처투자 1842억 달성
지역 VC 19곳 AC 28곳으로 증가
모펀드 3000억, 자펀드 투자 돌입
올해 5000억 추진 총2조 목표 설정

부산시는 지난해 지역 벤처 투자 실적이 1842억원을 달성했으며 벤처 투자 비율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별 벤처 투자 비율은 박형준 시장 임기 초기인 2021년 1.6% 수준에서 2024년 2.8%까지 증가했다. 지역 벤처 투자사(VC)도 지사를 포함해 2021년 기준 11개 사에서 19개 사로, 창업 기획자(AC)는 15개 사에서 무려 28개 사로 늘었다.

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 지역 주도로 조성한 모펀드인 '미래성장벤처펀드'의 자펀드를 3000억원 규모로 결성, 올해 본격적으로 투자에 나서는 등 지역 혁신 기업들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 투자 확대와 다각적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지역 벤처 투자액이 1842억원을 기록하며 투자 비율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

특히 지난 2월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모한 '지방시대벤처펀드'도 시가 우선 협상 지자체로 선정돼 본격적으로 '부산혁신스케일업펀드'를 조성하며 2000억원 상당의 자펀드를 연내 결성할 계획이다.

시는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 산업을 고도화하며 글로벌 도시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한 '부산시 9대 전략 산업'을 이끌어가는 초기, 성장 단계 창

업·벤처 기업과 스마트 첨단 제조 기업,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주목적 투자 대상으로 지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조성하는 모태 기반 초기 창업 분야 펀드 조성을 위해 20억원을 편성, 당초 결성 총액의 10%였던 시 출자 금액을 최대 20%로 확대했다.

지난해 지역 창업 생태계 관계자 간 담회 때 지역 투자사들의 주요 제안

사항 중 하나였던 시의 기관 출자자(LP) 참여 확대 요청을 적극 반영했다.

또 지역 대학의 인적 자원과 기술을 바탕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학기술사업화펀드' 조성에도 출자금 10억원을 배정, 대학 기술 창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로써 지역 벤처 투자 비율은 3%대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기대되며 시는 2030년까지 추가로 8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총 2조원까지 투자함으로써 지역 벤처 투자 비율을 4%대까지 증가시킬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우리 시는 올해 설립된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을 중심으로 지역 투자 활성화와 적극적인 투자 생태계 조성, 지속 가능한 혁신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지역 최초로 거대 신생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기술 창업 기업 발굴·보육·투자·기반 시설까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창원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창원시는 3월 17일부터 5월 9일까지 2026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확대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부서 검토, 주민 의견 수렴, 심사, 온라인 투표, 예산안 편성·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연도에 시행되는 제도다. 이번 공모는 ▲시 정책 사업 ▲구 정책 사업 ▲읍면동 생활 안전형 사업으로 총 3개 분야 30억원 규모로 시행된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포항시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지원

포항시는 17일부터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와 협업해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무상 보급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으로 대상 차량이 본인 명의의 차량이거나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보호자 명의의 차량인 자다. 단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감면 단말기 무상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된다. 대구·경북 지역 내 한국도로공사 전 영업소 사무실에서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차량등록증,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제출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선착순으로 지원된다. /포항(경북)=최지용 기자 asdadx@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846억원(국비 360억원, 시비 486억원)을 투입해 생물다양성 보전 강화, 생태계서비스 이익증대, 생물다양성 주류화 등 3개 전략과 31개 세부 실천과제를 담은 '광주시 생물다양성 전략'을 추진한다. /광주광역시

광주시, 호남 첫 자연공존 도시전략 추진

도시 생태축 복원 등 846억 투입 람사르습지 지정·탄소흡수원 조성

광주시가 도시 생태축·훼손지 복원, 자연공존지역(OECM) 제도 도입 등을 담은 '지역 생물다양성 전략'을 수립, 자연과 공존하는 지속가능 생태도시 조성에 앞장선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846억원(국비 360억원, 시비 486억원)을 투입해 ▲생물다양성 보전 강화 ▲생태계서비스 이익증대 ▲생물다양성 주류화 등 3개 전략과 31개 세부 실천과제를 담은 '광주시 생물다양성 전략'을 추진한다.

먼저 '생물다양성 보전 강화'를 위

해 도시 생태축·훼손지 복원, 자연공존지역(OECM) 제도 도입, 장복습지 람사르습지 지정 및 탄소흡수원 조성 등 14개 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환경부의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2024~2028)'과 연계해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를 보호지역으로 관리하는 국가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도심 내 자연공존지역(OECM) 발굴에 힘쓸 계획이다.

또 '생태계서비스 이익 증대'를 위해 도시 생태계 서비스 가치평가 및 고유지표 발굴, 도시녹지 및 공원 확충, 생태숲 조성·관리 등 8개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양수영 기자

보성군 "찾잎 따고, 추억도 담으세요"

오는 5월 2~6일까지 축제 개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차(茶) 문화 축제인 '보성다향대축제'가 오는 5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보성군 한국 차문화공원과 보성차밭 일원에서 개최된다.

보성군은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해 철저한 준비에 나섰으며, 이번 축제를 통해 국내외의 관광객들에게 '녹차수도 보성'의 진면목을 선보일 계획이다.

'보성다향대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2024~2025 문화관광축제'이자 '전라남도 대표 유망축제'로 선정되며 그 명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지난해 12만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된 보성다향대 축제는 차의 본고장 보성에서 차 문화

의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축제는 '보성에서 피어나는 천년 차의 약속'을 주제로, 한국 차 문화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고 차를 매개로 한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한다.

보성차생산자조합이 주최하고 보성다향대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보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군은 올해 축제를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방문객들은 차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차의 가치와 멋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보성(전남)=양수영 기자

전남도 "수소산업으로 미래 연다"

1천500억 수소인프라 추진

전라남도가 수소산업을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추진한다.

전남도는 지난해 3월 산업통상자원부(한국수소연합)가 주관한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에 선정돼 2024년 1차년도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2차년도(2025년)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실제로 전남도는 지난해 14개 기업을 예비수소전문기업으로 선정해 기업당 최대 6천만 원을 지원했다.

그 결과 수혜 기업은 특히 등록·

출원 14건, 시제품 제작 8건 등 기술력 향상, 시장 진출 역량 강화에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수소전문가 19명 양성, 신규 고용 창출 58명 결실도 봤다.

특히 실적이 우수한 2개 기업은 산업부의 수소전문기업 신청 요건을 충족해 5월께 수소전문기업 지정 신청을 앞두고 있다.

전남도의 지원을 받은 한 수혜기업 대표는 "아직 국내 수소산업이 낮은 기술 수준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전남도와 녹색에너지연구원의 꼼꼼한 1대1 컨설팅 덕분에 신기술 개발로 매출이 크게 늘었다"며 지자체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경주시, 야간경제 활성화 나선다

세계축제 씨앗 오늘부터 나흘간 개막

전 세계 축제 리더들이 모이는 'Global Festival Summit 2025'가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경주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축제와 신 야간경제'를 핵심 의제로 삼아, 축제가 도시 경제와 지역 재생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한다. 특히 야간 경제구역 인증제도(피플플래그) 등 새로운 개념도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올해 씨앗은 세계축제협회(IFEA) 총회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진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경북도지사, 태국 5개 도시 축제 관계자 등 20여 명을 비롯해 아시아 11개국 50개 도시에서 200여 명이 참여한다. 세계축제협회(IFEA) 이사진과 유명 축제 전문가들도 참석해 글로벌 축제 트렌드를 공유할 계획이다.

/경주(경북)=최지용 기자

울진군 관광객 대상 농어촌버스 무료

울진군은 17일부터 군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농어촌버스를 전면 무료로 운행한다.

이번 정책은 이용객의 교통 편의성을 높이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역 경제와 관광산업 촉진 등을 위해 추진되었다. 1월 1일 철도개통과 함께 농어촌버스 무료 시행으로 군민 중심 복지 향상과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울진군과 울진군의회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진행된 것으로 군은 주민 의견을 수렴, 버스 운영사와의 협의와 예산 확보 및 버스 운영 체계 점검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완료했다. /울진(경북)=손기성 기자 gbnnews8082@

청도군 명품 먹거리 관광지로 도약

청도군이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2025년도 우리동네 명품먹거리 조성사업의 최종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청도군 유흥리 일원에 조성된 유천문화마을이 지역 대표 먹거리 관광명소로 거듭날 전망이다. 지난 2월 3일부터 21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영주시, 영천시, 청도군, 봉화군 등 4개 지역이 서류 심사를 통과했으며, 이후 현장 평가 및 발표를 거쳐 청도군(유천문화마을)과 영천시(우로지 공원 일대)가 최종 선정됐다.

/청도(경북)=김준환 기자 kih9@

홈플러스 “상거래채권 이어 유동화증권 전액 책임질 것”

“희생절차에 채권상환 일시 유예 정해진 일정 따라 회수 못해 사과 증권사 협력 전액변제 목표 협의”

노조 “사재출연, 근본적 책임회피 여론압박 피할 임시방편” 지적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사재 출연을 선언한 가운데 홈플러스가 소상공인 상거래채권 변제 시기를 앞당기고, 유동화증권 전액 변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홈플러스는 입장문을 내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영세업자 채권 지급은 물론 소상공인에 대한 대금 지급도 조기에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매입채무유동화와 관련해서는 “자산 유동화단기채권(ABSTB)을 포함, 유동화증권 투자자들은 당사의 직접적인 채권자는 아니지만, 해당 채권의 변제에 대한 최종 책임은 당사에 있다”며 “관련 증권사들과 협력해 희생 절차를 따라 전액 변제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2일 서울 시내 홈플러스 매장 내부 모습. /뉴스1

그러면서 “더불어 희생절차가 개시되면서 매입채무유동화를 포함한 채권 상황이 일시 유예됨에 따라 정해진 일정에 따라 채권 회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더 사과드린다”며 “죄송한 마음을 바탕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각 채권자들과 가능한 변제 방안에 대해 최대한 성실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홈플러스가 상거래채권 변제 시기를 앞당기고 유동화증권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것은, 홈플러스 지분 100%

를 소유하고 있는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사재 출연을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지난 16일 “홈플러스 희생 절차와 관련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사재 출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병주 회장이 사재 출연을 선언했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금액을 밝히지 않으면서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임시적 조치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측은 “김 회장의 사재 출연 발표는 근본적

인 책임 회피에 불과하며, 여론과 정치적 압박을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홈플러스 사태가 악화되고 국회의 출석 요구, 국제청 세무조사, 노조의 반발 등 사회적 압박이 거세지자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마지못해 사재 출연이라는 임시 대응을 내놓은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 없는 일시적 사재 출연이 아니라, 충분한 사재 출연을 통해 기업 희생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홈플러스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MBK가 홈플러스 기업희생 절차라는 심각한 상황에서도 다른 기업 인수(M&A) 행위를 추진하고 있다”며 “즉시 모든 기업 M&A 행위를 중단하고 홈플러스 정상화에 집중할 것을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홈플러스 측은 김 회장의 사재 출연과 관련해 “현재 소상공인 채권 지급에 필요한 소요 금액을 추산 중”이라고 답했다.

연이은 의혹에 논란 역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주당 이인영 의원이 입수한 신영증권의 2023~2025년 월별 홈플러스 관련 ABSTB·기업어음(CP)·단기사채 발행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홈플러스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ABSTB 규모는 1518억원으로, 월별 기준 최근 2년 사이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신영증권이 발행한 전체 ABSTB 물량도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ABSTB 발행액이 3608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의혹이 계속되는 만큼 사재 출연만으로는 채권자들의 불안을 쉽게 잠재우기는 힘들 것”이라며 “사재를 언제 어느 규모만큼 출연할 것인지 계획을 밝히고, 희생절차 개시에 따라 유동화증권을 전액 변제하겠다고 했는데, 그 과정을 계속해서 상세히 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기준 상거래채권 지급액은 총 3400억원이었으며, 같은 날 오후 약 110억원이 추가 지급되면서 총지급 완료 금액은 3510억원이 됐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컬리, 활력충전 ‘몸을 깨우는 식사법’ 기획전

600여개 상품 최대 30% 할인
활력·입맛·나른함 깨우기 구분
나물밥·감자탕·파스타 등 준비

리테일 테크 기업 컬리가 이달 20일까지 ‘몸을 깨우는 식사법’ 기획전을 진행한다

컬리에 따르면, 이번 기획전을 통해 활력 충전에 도움이 되는 상품 600여개를 최대 30% 할인해 선보인다. 따뜻한 국물부터 매콤한 요리, 제철 식재료 만든 간편식, 건강식 등이 준비됐다. 각각의 상품들은 ‘활력 깨우기’와 ‘입맛 깨우기’, ‘나른함 깨우기’ 등 카테고리별로 구분해 편의성을 더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가장 먼저, ‘활력 깨우기’ 카테고리에



‘몸을 깨우는 식사법’ 기획전 포스터. /컬리

는 ▲백년가게 운채 향긋한 모듬나물밥 ▲구씨반가 송이버섯 들깨탕 ▲그리팅 성산포바당 제주 고사리 육개장 등이 포함됐다.

‘입맛 깨우기’ 카테고리에서는 매콤한 요리를 만날 수 있다. ▲안원당 우거지 감자탕 ▲중앙닭강정 닭강정 3종

▲모노키친 빨간 어묵볶이 등 매콤한 한식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서촌 영화루 고추잠뽕 ▲리틀 후쿠오카 매운 돈코츠 라멘 ▲금통각 마라탕 등도 준비됐다.

‘나른함 깨우기’ 카테고리에서는 간편식을 선보인다. 대표 상품으로는 ▲어반다이닝 바지락 스팀 파스타 ▲미식 회관 바로바로 호롱낙지 ▲마더푸드 오리지널 쪽갈비 등이 있다.

컬리 관계자는 “명랑한 봄을 맞이해 활력 충전에 도움이 되는 건강식과 간편식, 간식 등을 엄선했다”며 “컬리가 준비한 이번 기획전이 그간 움츠렸던 몸을 깨워 입맛과 건강을 모두 챙기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GS25, 31일까지 상반기 신입사원 공채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이달 17일부터 31일까지 2025년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진행한다

채용 절차는 서류 접수, 인공지능(AI) 역량 검사, 1차 면접, 2차 면접, 채용 검진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최종 합격자는 7월 중 발표되며, 이후 입사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선발된 신입사원은 ▲가맹 및 직영점

운영 컨설팅 ▲본부 전략 전달 ▲점포 양수도 및 재계약 관리 ▲손익 및 비용 관리 등 현장 중심의 실무 경험을 쌓게 된다.

GS25는 이번 채용에서 일반 전형, 캠퍼스 리크루팅, 전역장교 전형 외에도 ‘스펙초월 전형’을 새롭게 도입했다. 학력, 어학 점수 등 기존의 정량적 스펙을 배제하고, 창의적 아이디어와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안재선 기자

SSG닷컴, 봄옷·잡화류 ‘패션명품 썬세일’

SSG닷컴이 이달 23일까지 일주일간 봄옷과 잡화류를 중심으로 올해 첫 ‘패션명품 썬세일’을 진행한다

SSG닷컴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서는 봄 신상 의류를 다양한 혜택과 함께 선보인다. 특히, SSG닷컴 입점을 기념해 브룩스브라더스와 리우리우는 추가

할인 혜택을 마련했다. 헬렌카민스키 신상품 모자를 선문칭하는 행사도 열린다.

지난 시즌 상품을 최대 8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이는 재고 정리 세일도 진행한다. 슈즈미스, 시슬리, 아무르 무아르, 에피그램 등의 브랜드가 참여한다.

/안재선 기자

美 행동주의 펀드, 한국콜마 ‘경영참여’ 천명

이달 말 정기주총 임원 선임 요구

최근 국회에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미국 행동주의 펀드 달튼인베스트가 국내 대표 화장품 제조업체 한국콜마에 대한 경영권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경영참여’를 천명하며 이달 말 정기주총에서 임원 선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17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한국콜마의 지주회사 콜마홀딩스가 오는 31일 ‘제35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 이날 이사 선임 안건에는 임성운 달튼코리아 공동대표가 신규 이사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임성운대표는 시카고대 경영학석사(MBA) 출신으로 현재 달튼인베스트에서 파트너 포트폴리오 매니저 및 시니어 애널리스트 업무를 맡고 있다. 임성운대표가 콜마홀딩스 이사로 선임되는 경우 임기는 2년이다.

특히 달튼인베스트는 지난 14일에는 콜마홀딩스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목적’에서 ‘경영참여목적’으로 변경했다. 또 주식을 추가 매입해 달튼인베스트가 보유한 지분율은 5.02%에서 5.69%로 커졌다.

이와 관련 달튼 측은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해 관계 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

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달튼코리아의 주주제안으로 이사회에서 기타비상무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한 것”이라며 “이사 신규 선임시 이사회 내에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콜마홀딩스 최대 주주 및 특별관계인 지분은 48.45%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대 주주는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으로 31.75%를 보유하고 있다. 윤여원 콜마비엔에이치 사장은 7.45%, 유동한 한국콜마 회장은 5.59% 순이다.

/이정하 기자 mlee236@

CJ제일제당-컬리, 현미곤약 주먹밥 출시

전주비빔·김치베이컨 등 3종

CJ제일제당이 컬리와 공동으로 기획한 신제품 ‘제일맛게컬리 현미곤약 주먹밥’ 3종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CJ제일제당과 컬리의 협업 프로젝트인 ‘제일맛게컬리’를 통해 선보이는 다섯 번째 제품이다.

‘제일맛게컬리 현미곤약 주먹밥’ 3

종은 ‘전주비빔’, ‘닭가슴살 블랙페퍼’, ‘김치베이컨’으로, CJ제일제당만의 기술력을 통해 현미의 거친 식감과 곤약 특유의 미끌거림을 개선하고 고슬고슬한 밥알의 식감을 극대화했다. 주먹밥 1개당 155~165Kcal로 부담 없이 건강한 한 끼 식사로 활용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제약·바이오업계, 미용의료시장 ‘훠훠’… 최대실적 등 성과

**휴젤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 달성
메디톡스 2년 연속 실적 신기록
GC녹십자 이니바이오 지분 확보
동국제약 특신 포트폴리오 확장**

국내 미용의료 시장에서 주요 기업들이 매출 성과를 내며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휴젤, 메디톡스 등은 지난해 모두 최대 실적을 올렸고 보툴리눔 독신, 히알루론산 필러 등 사업 전반에서 성장 동력을 마련했다.

◆ K-특신 선두주자, 실적 고공행진

17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휴젤은 지난 2024년 실적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에서 두 자릿수 성장세를 기록하며 외형을 확장했다.

휴젤의 지난해 매출액은 3730억원, 영업이익은 1663억원이다. 각각 전년 대비 17%, 41%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46% 급증해 1424억원이다.

휴젤은 핵심 사업인 보툴리눔 독신 사업에서 처음으로 연 매출 2000억원을 넘기며 사업 영향력을 높였다. 보툴리눔 독신 매출은 2032억원으로 전년 대비 20% 늘어 해당 사업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 수준이다.



휴젤 춘천 거두공장 전경.



/휴젤 메디톡스 오송 R&D 센터 전경.

/메디톡스

이러한 호실적에 대해 휴젤은 아시아를 넘어 미국, 유럽 등에서 고성장한 결과라는 분석을 내놴다. 보툴리눔 독신 사업의 경우, 해외 매출은 전년 대비 39.6% 커졌다.

휴젤은 올해도 글로벌 시장에서 매출 성장을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미국에서 보툴리눔 독신 제제 ‘레티보’ 판매를 본격화한다. 휴젤은 지난 2024년 7월 말 첫 레티보 미국 수출 물량 선적을 완료했고, 향후 3년 내 미국 현지에서 시장점유율 약 1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바이오제약기업 메디톡스는 2년 연속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

다. 메디톡스의 2024년 매출은 2286억원이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200억원 158억원이다. 각각 전년 대비 3.4%, 15.6%, 63.5% 증가했다.

메디톡스는 올해 대량 생산 체제와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 2월 오송 3공장 E동을 비동물성 보툴리눔 독신 제제 ‘코어톡스’ 신규 제조소로 추가했다. 오송 3공장 E동은 기존 B동보다 3배 이상의 생산능력을 갖췄다. 앞서 지난해 말에는 해당 시설을 차세대 보툴리눔 독신 제제 ‘뉴릭스’ 제조소로도 추가해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메디톡스는 최근 보툴리눔

독신 제제 ‘메디톡스’ 품목허가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사업 불확실성까지 해소했다.

◆ K-특신 후발주자들, 전문기업 인수 등 경쟁 대열 합류

GC녹십자웰빙, 동국제약 등도 보툴리눔 독신 후발주자로 경쟁 대열에 도전하고 있다. 이들은 제품 자체 개발보다는 전문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해당 시장에 진입했다.

GC녹십자웰빙은 지난 2월 에스테틱 기업 이니바이오의 경영권이 포함된 지분을 취득했다.

이니바이오는 지난 2017년 설립된 바이오 의약품 회사다. 특허받은 순도 100%의 제품 생산 기술력, 미국 식품의

약품(FDA), 유럽 의약품청(EMA) 등에서 승인 가능한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을 갖춘 생산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니바이오의 보툴리눔 독신 ‘이니보’가 군주 출처 논란에서도 자유롭다는 것도 기업 경쟁력을 높인다. 이니보 군주는 스웨덴의 미생물 분양 기관이자 군주 은행인 CCUG에서 도입했다.

이밖에 GC녹십자웰빙은 지난해 이미 유명제약과 중국 필러 시장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내외 미용의료 시장을 정조준해 사업 영역을 다각화해 왔다.

동국제약도 보툴리눔 독신 제제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했다. 동국제약은 지난해 한국비엔씨와 ‘비에녹스주’에 대한 국내 독점 판권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했다. 내부에서는 메디컬 에스테틱 사업부(dkma)도 출범 시켰다.

국내 제약 업계 관계자는 “국내 미용의료 시장은 한정적인데 다양한 기업이 사업을 늘리고 있어 자칫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할 수 있겠지만,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시장의 크기와 성장세를 고려해 새로운 이익 창출 기회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LG화학, ‘제미글로’ 누적판매 1조 돌파

(국산 당뇨병 치료 신약)

**당뇨시장 1위… 11년 연속 성장
효능·안전성 등 차별화 경쟁력 주효**

LG화학의 제2형 당뇨병 치료 신약 ‘제미글로’ 제품군의 역대 누적 판매액이 1조원을 돌파했다.

LG화학은 최초의 국내 개발 당뇨병 치료 신약인 ‘제미글로’ 기반 제품군(제미글로, 제미메트, 제미다파, 제미로우)의 2012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합산 원외처방액(유비스트 시장자료)이 1조 659만원을 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1조원 매출을 넘긴 국산당뇨약 브랜드는 제미글로가 처음으로, 출시 후 11년 연속 성장, 연평균 성장률 35%를 나타냈다.

LG화학은 해외 제약사 제품이 장악한 당뇨시장에서 2003년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도전해 2012년 신약개발에 성공, 같은 해 12월 제미글로를 출시했다. 이후 1조원 규모의 국내 당뇨시장



LG화학 ‘제미글로’

에서 1위로 도약하기까지 10년이 걸렸다. 2023년 첫 시장점유율 선두로 올라섰고, 2024년에는 전년 대비 6% 증가한 1530억원 매출을 기록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LG화학은 현재 50만명 이상의 당뇨병 환자들이 제미글로 제품군을 복용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LG화학은 제미글로의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가 주효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LG화학은 개발 착수 이후 20여년간

총 1500억원을 투자해 풍부한 임상 근거를 축적하며, 제품 효능 및 안전성에 대한 높은 고객 신뢰를 구축했다. LG화학은 제미글로의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를 위해 40여개의 연구를 수행했고, 참여 시험자 수는 약 1만3000명에 달한다.

또 LG화학은 제미메트, 제미다파, 제미로우 등 제미글로 기반의 복합제 사업 확대에 환자의 약가 부담을 완화 시켰다. 2025년 3월 기준 ‘제미다파’ 약가는 동일 성분 각 단일제 합산 약가보다 최대 25%(5.1~25.6%) 낮다.

LG화학 손지웅 생명과학사업본부장은 “매일 수십만명의 당뇨병 환자들이 제미글로 제품으로 치료를 받을 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제품과 회사에 대한 고객의 두터운 신뢰 덕분이었다”며 “앞으로도 환자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는 의약품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맘스터치, 日 하라주쿠에 초대형 매장 연다

상반기 내 직영 2호점 오픈 계획

토종 버거·치킨 브랜드 맘스터치는 올해 상반기까지 도쿄 하라주쿠 내 핵심상권에 초대형 매장 ‘하라주쿠 맘스터치’를 오픈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작년 4월 문을 연 직영 1호점 ‘시부야 맘스터치’에 이어 현지 직영 2호점으로, 국내의 모든 맘스터치 매장을 포함해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직영 2호점 ‘하라주쿠 맘스터치’는 하라주쿠 역 인근 최대 변화가인 다케시타 거리에 550㎡(166평), 약 300석의 대규모 매장으로 꾸며진다. 맛집과 패션 등 도쿄에서 가장 트렌디한 지역으로 꼽히는 하라주쿠에서도 현지 MZ세대와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려 인구 유동량이 집중되는 다케시타 거리 핵심상권에 위치해 연중 활기를 띠는 자리다.

‘하라주쿠 맘스터치’는 이미 시부야 맘스터치를 통해 현지 소비자들에게 상품성이 검증된 ‘싸이버거’를 비롯한 치킨버거, ‘빅싸이언살’ 등 순살치킨을 주력으로 판매하며, 지난 2월 시부야 맘스터치에서 첫 선을 보인 ‘맘스피자’를 스텝 인습 형태로 운영해 ‘싸이피자’, ‘데리야끼 싸이피자’ 등 기존 현지 레스토랑 브랜드와 차별화된 메뉴로 핵심 타깃인 젊은 세대와 외국인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맘스터치는 지난 23년 10월 도쿄 팝업스토어에 이어 작년 4월 시부야 핵심상권에 직영 1호점을 오픈했으며, 현지 레스토랑 브랜드로서는 이례적으로 높은 구글 평점 4.5를 유지하는 등 고객들의 긍정적 반응과 높은 수익성에 힘입어 올 상반기 2호점 출점을 통해 일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지씨셀, 국가신약개발사업단 ‘CMC 전략 컨설팅’ 수행

세포·유전자 부문 CDMO 등 지원

지씨셀이 국가신약개발사업단의 ‘2025년 의약품 화학·제조·품질관리(CMC) 전략 컨설팅’ 사업 세포·유전자 부문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국가신약개발사업단은 해당 사업을 통해 신약 후보물질을 보유한 중견·중

소·벤처기업에게 의약품 제조, 분석, 허가 등에 필요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 신약 개발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세계적 수준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다.

지씨셀은 세포·유전자 부문에 대해 신약 후보물질 선정, 생산, 품질, 허가 절차 등을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개발 전략 ▲제조 및

생산 ▲품질평가 ▲인허가 및 심사 등으로 의약품 사업 전반에 걸쳐 폭넓게 설정됐다.

특히 컨설팅 과정에서 도출된 전략을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위탁개발생산(CDMO) 부문과 연계한 지원을 제공한다. 지씨셀은 신약 개발 기업의 성공적인 임상 진입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아모레퍼시픽 라네즈 ‘바운시 앤 펌 세럼’ 출시

아모레퍼시픽은 글로벌 뷰티 브랜드 라네즈에서 신제품 ‘바운시 앤 펌 세럼(사진)’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라네즈 ‘바운시 앤 펌 세럼’은 고효능 스킨케어 제품이다. 피오니&콜라겐 복합성분으로 처방돼 피부 탄성을 관리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신제품에는 라네즈만의 혁신 스킨케어 기술이 적용돼 평균 2만4000개 이상의 캡슐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라네즈에 따르면, 바운시 앤 펌 세럼



을 8주간 사용한 사용자 96.7%는 피부가 수분감으로 더 촉촉해진 느낌이라고 응답했고, 사용자 100%가 사용 후 피부가 더 매끄러워졌다고 답변했다.

라네즈는 신제품 출시와 함께 글로벌 캠페인도 전개한다. 글로벌 엠버서더 시드니 스위니가 단순한 수분 공급을 넘어 피부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만드는 스킨케어법을 제안한다.

/이청하 기자

LOTTERIA™

감자연구소 못난이 치즈감자

외형만 못생긴 국내산 감자로 재탄생한
대만 야시장 스타일 감자 디저트



← 진하고 고소한 체다크림치즈소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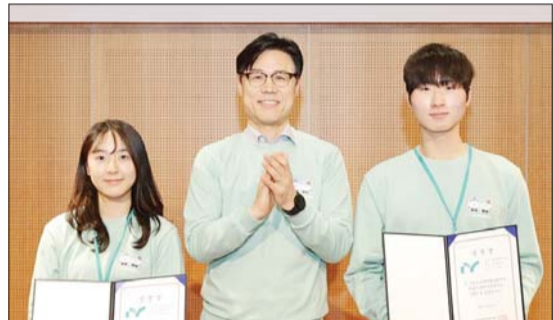


* 상기 이미지와 실제 제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이웃돕기 성금 1억 기부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지난 13일 세종특별자치시청을 찾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1억 원을 기부했다. 김윤희 세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회장(왼쪽부터),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박상혁 세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타이어뱅크



DGB사회공헌재단, 'IM대학생봉사단' 본격 활동

DGB금융그룹 DGB사회공헌재단은 IM뱅크 제2본점에서 'IM대학생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연간 활동계획 및 홍보전략 발표, 선서 및 임명장 수여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성태문 DGB금융지주 그룹가치경영총괄 부사장(가운데)이 대학생봉사단원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DGB금융



유한양행,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 캠페인' 실시

유한양행이 지난 10일 본사를 시작으로 12일 연구소, 13일 공장 등 3일간 3개 사업장에서 '암환자를 위한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헌혈 캠페인은 본사를 비롯해 연구소, 공장 등 3개 사업장에서 진행되고, 이달 21일까지 헌혈증 기부도 받고 있다. 임직원들이 기부한 헌혈증은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을 통해 소아암을 앓고 있는 환아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유한양행



한솔제지, 제지 부문 '가장 존경받는 기업' 선정

한솔제지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조사에서 제지 부문 1위에 올랐다. 한솔제지는 이번 조사에서 ESG 경영, 친환경 사업 등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솔제지 한경록 대표(왼쪽)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 한상록 전무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솔제지

아영FBC, '주류대상' 12관왕

종합주류 전문기업 아영FBC는 '2025 대한민국 주류대상'에서 최고의 영예인 'Best of 2025'를 포함해 수입사 중 최다인 12개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압도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17일 밝혔다. 아영FBC는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스파클링 와인 위스키 등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뛰어난 제품력을 인정받으며 국내 수입주류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신원선 기자

CJ그룹, 신입사원 모집... 'K컬처' 글로벌 주역 육성

ENM 등 주요 계열사 채용 다채로운 채용 콘텐츠 마련

CJ가 그룹의 미래 성장을 이끌 2025년도 신입사원 채용에 나선다.

CJ그룹은 오는 19일부터 CJ제일제당, CJ대한통운, CJ ENM, CJ올리브영, CJ올리브네트웍스 등 주요 계열사를 포함한 '2025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CJ그룹의 2025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지원은 'CJ그룹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



CJ그룹 '2025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홍보 이미지.

며, 접수 마감일은 4월 3일이다. 지원서 접수 이후 서류 전형 합격자들

은 ▲인적성 검사 ▲면접 ▲직무수행 능력평가(인턴십) 등 계열사별 맞춤형 전형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후 최종 합격자는 7월 중 입사, CJ그룹 신입사원으로서 입문 교육을 받게 될 예정이다.

CJ그룹은 이번 신입사원 채용 지원자들에게 유용한 채용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고, 우수한 역량을 갖춘 인재들의 지원을 적극 도모하고자 다채로운 채용 정보 영상 콘텐츠를 회사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CJ NEWSROOM'과 'CJ Career s'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CJ그룹은 최근 인크루트에서 발표한 '2025년 대학생이 가장 일하고 싶은 그룹사' 조사에서 2위로 선정되며, 예비 구직자인 전국 대학생들의 높은 취업 선호도를 입증한 바 있다.

향후 CJ그룹은 전 세계적인 K-컬처 확산 열풍에 발맞춰 그룹 해외 사업의 주역이 될 글로벌 인재를 확보하고,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CJ그룹의 2025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CJ그룹 채용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금융감독원, 디지털 전환 선포

이복현(가운데) 금감원장과 관계자들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디지털 전환 선포식'에 참석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생명연, 권석운 원장 취임... "국가 바이오역량 강화"

기관 중점 전략에 'T·O·P' 제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하 생명연)은 17일 오전 10시 대전 본원 대강당에서 15대 권석운 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에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회는 권석운 박사를 신임 원장을 선임하였고, 14일부터 3년 간의 임기가 시작됐다.

이날 권석운 신임 원장은 취임사에서 "급변하는 글로벌 바이오 환경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더욱 도전적인 혁신을 이뤄야 할 시점에 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기관 중점 전략으로 'T·O·P'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함께(Together): 내부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외부 연구주체들과의 개방형 혁신 강화 ▲뛰어난(Outstanding): 기관의 목표를 재정립하고,



권석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신임 원장이 14일 오전 10시 대전 본원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조직 중심의 연구수행 체계를 강화하여 연구수월성 제고 ▲목표에 이르는 길(Pathway): 내부 협업환경 강화 및 연구행정체계 선진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강화를 뜻하는 말이다.

권 신임 원장은 "우리의 혁신과 성장은 기관의 발전을 넘어 국가의

바이오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바이오 위상을 높이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이 중요한 여정에 여러분과 동행하며 이 변화의 과정을 이끌어 나가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권 원장은 서울대학교 식물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식물학 석사, 생물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생명연에서 부원장, 융합생물소재 연구부장, 기술사업화센터장, 식물시스템공학연구센터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또한,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기획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현재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이사, 한국바이오경제학회 부회장, 한국식물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생명공학 분야의 다양한 대외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

기아 '하모니움' 참여자 모집

기아는 다문화 청소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하모니움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하모니움'은 조화를 의미하는 '하모니'와 새싹이 돋아나고 의미하는 '움트다'의 합성어로, 국내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및 다문화 수용성 향상을 위해 지난해 새롭게 런칭한 사회공헌 사업이다.

교육은 ▲정보통신(IT)기술 ▲F&B ▲영상편집 ▲조경기술 등 4가지 분야로 진행되며 상반기는 올해 4~8월까지, 하반기는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운영된다.

신청은 오는 24일 오전 11시까지 하모니움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양성운 기자 ysw@

인사

◆국민권익위원회 ◇고위공무원 승진(나등급) △권익개선정책국장 유현숙

◆국가유산청 ◇고위공무원 임용 △자연유산장 김동대 ◇과장급 임용·전보 △유적발굴과장 김창권 △한국전통문화대 교학처 교무과장 김선국

◆신영증권 ◇승진 <부장> △FICC파생운용부 강철민 △채권운용부 강현호 △채널개발팀 김민수 △인사팀 김수현 △AEPX 영업부 김원일 △자산전략팀 성연주 △APEX패밀리오피스부 송재광 △재무관리팀 윤종수 △SP Sales부 이권철 △미래금융팀 이병수 △개발금융부 이흥규 △구조금융부 허문병 △CIS부 황운태 △APEX Private Club 명동 황혜은

부음

▲정대상씨 별세, 남점순씨 배우자상, 정민호·은하·은미씨 부친상, 김춘화씨 시부상, 이채원(라이프자산운용 이사회 의장)씨 장인상=17일 오전, 부산시민장례식장 402호, 발인 19일. 051-636-4444

▲문정석(전 조선대 의대 교수)씨 별세, 유병모씨 남편상, 문동수·문주영(전 경향신문 전국사회부장)·문진영·문경수씨 부친상=16일 오후 9시30분,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9일. 062-231-8901

오투기라면, 'Worldstar 어워즈' 수상

점자 용기 통해 장애인 불편 해소

오투기라면이 세계 포장 기구(World Packaging Organization)에서 선정하는 2025 Worldstar 어워즈 'Food' 부문에서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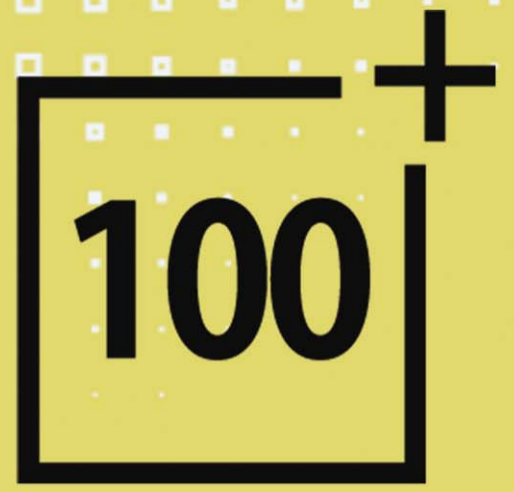
오투기라면은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정보 접근성 및 관리 보장을

목표로, 라면 용기에 외부 점자 및 사용 방법을 표시한 '점자 용기'를 선보였다. 기존 종이 용기의 형압 방식에서 벗어나 인쇄 및 발포 기술을 활용한 세계 최초의 점자 표시 방식으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했다. 특히, 조리선과 기본 조리방법까지 표기해 시각 장애인의 불편한 해소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이번 '2025 Worldstar' 어워즈에서 수상하게 됐다.

오투기라면 관계자는 "이번 점자 용기 글로벌 패키징 어워드 수상을 통해 점자 용기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더 많은 제품에 점자 표기를 확대하여 국내외 사회적 약자들이 우리 회사 제품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원선 기자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



난세(亂世)의 소확재(小確財)

힘든 세상, 작지만 확실한 재테크

2025년 3월 25일(화) 오후2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행사개요

- 행사명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
 - 주 제 난세(亂世)의 소확재(小確財)-힘든 세상, 작지만 확실한 재테크
 - 일 시 2025년 3월 25일(화) 14:00~17:10 (VIP 티타임 13:30~14:00)
 - 장 소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컨벤션홀)
 - 주 최 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 등 록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당일 카드결제 가능
 - 문 의 100세플러스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프 로 그 램
참가등록	13:00 ~ 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개막식	14:00 ~ 14:10	〈축사〉 김병환 금융위원장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10 ~ 14:50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 글로벌 경기와 대한민국 경제 전망
강연	14:50 ~ 15:25	염승환 LS증권 이사 : 미국 주식 여전히 유효한가...증시 전망과 투자전략
	15:25 ~ 16:00	호지영 우리은행 세무컨설팅팀 : 자산가들의 절세노트 훑쳐보기
	16:00 ~ 16:35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상무 : 은퇴 준비와 작지만 확실한 재테크
	16:35~17:10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내집마련은 언제?...부동산시장 전망과 투자전략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연사 소개



김영익
-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 서강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 옥스퍼드대학교 그린템플턴 컬리지 수료



염승환
- LS증권 이사
- 경제유튜브채널 <삼프로TV>
- 저서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질문 TOP77>



김동엽
- 미래에셋투자연금센터 본부장
- KBS1라디오 <은퇴설계, 오늘부터> 출연
-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센터장



호지영
-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세무컨설팅팀
- 前 대신증권 WM추진부
- 前 KPMG 삼정회계법인 컨설팅본부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 소장, 수석부사장
- 저서 <박원갑 박사의 부동산 트렌드 수업>

구멍가게의 추억



김준형의
청명파니

필자가 어릴 적, 동네마다 구멍가게가 있었다. 당시의 구멍가게는 어린이들의 천국이었다. 대부분 간판도 없는 가게였지만, 그곳에는 쭉쭉바 같은 아이스크림도, 뽕빠이 같은 과자도 있었다. 그런데 초등학교를 다닐 무렵이 되자, 슈퍼마켓이라는 것이 생겼다. 슈퍼마켓은 구멍가게보다 규모도 크고, 제품도 다양했으며, 값도 싸다. 사람들은 구멍가게에 발길을 끊고, 슈퍼로 몰려가기 시작했다. 당연히 많은 구멍가게가 문을 닫았다. 그래도 살아남은 구멍가게들은 간판을 달기 시작했다. 간판에는 ‘○○슈퍼’라고 되어 있었다. 그렇게 슈퍼마켓은 한동안 유지되었다. 그런데 90년대가 되자, 대형마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마찬가지로 대형마트들은 규모도 크고, 제품도 다양했으며, 값도 싸다. 사람들은 슈퍼마켓을 떠나서, 마트로 발걸음을 옮겼다. 살아남은 슈퍼마켓들은 간판을 바꿔 달았다. 이번에는 슈퍼마켓들이 ‘○○마트’가 되어 버렸다.

최근 홉플러스가 기업희생을 신청했다. 대주주인 MBK의 경영 방식에 대하여 비난도 있었지만,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대형마트들의 경영난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형마트가 재래시장의 상권을 위협한다고 하여,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일을 부과할 정도였다. 그러나 코로나를 거치면서 e커머스가 급속도로 성장했다. 소비자들은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가격을 비교하고, 터치 몇 번으로 장을 볼 수 있는 신세계에 폭 빠져 들었다. 이제는 e커머스가 새로운 강자가 되었다. ‘어부지리’의 고사처럼, 조개와 도요새가 싸우는 동안, e커머스는 어부가 등장해서 모두 잡아먹는 꼴이다. 코로나가 끝나도 마찬가지였다. 대형마트의 각종 악재는 수익성을 악화시켜 상품의 원가상승을 불러왔고, e커머스와 경쟁에서 밀려나게 되었다. 대형마트의 패배는 소비자들의 생활패턴을 ‘장은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으로 빠르게 바꿔 버렸다. 이런 생활 패턴은 대형마트에게도 재래시장에게도 큰 재앙이다. 물론 재래시장의 상인들도 우리의 이웃이고,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다. 그러나 수년이 지난 지금, 국가의 정책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과연 무엇인가? e커머스를 규제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아닐 것이다. e커머스에 규제를 가하면, 이 규제를 피한 또 다른 강자가 유통업계에 등장하게 된다. 이것은 필연이다. 구멍가게가 문을 닫을 때 사장님들은 ‘○○슈퍼’라는 간판을 달았다. 슈퍼마켓이 사라질 때도 ‘○○마트’라는 간판을 달았다. 이것은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려는 몸부림이었다. 생활패턴과 시대의 흐름은 법조항 몇 마디로 바꿀 수 없다. 그것은 지독한 오만일 뿐이다. 그런 것이 가능했다면 지금도 서울 거리에는 마차가 다니고, 서울 시민들은 북청물장수에게 한강물을 사서 마시고 있을 것이다. 시대의 큰 변화는 그렇게 해서 막아질 수도 없고, 또 막아서도 안 된다. 1910년대에 생긴 구멍가게에서 슈퍼마켓, 대형마트, e커머스로 유통시장은 변화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승자가 되었고, 누군가는 일지리를 얻었다. 그러나 누군가는 눈물을 흘려야만 했다. 진정한 국민을 위한 국가라면, 눈물 흘리는 국민을 위하여 ‘현상유지’를 고수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기회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김준형 칼럼니스트(우리마음병원장))

ESG와 개구리



이지수첩
나유리
(금융부)

매일 아침마다 당신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살아있는 개구리를 먹는 것이라면, 당신은 그것을 먹고 난 뒤 하루종일 그것보다 더욱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하루를 보낼 것이다. 비즈니스 컨설턴트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대표작 ‘개구리를 먹어라’라는 책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할 때 개구리를 먹어야 하는 것과 비견될 정도로 하기 싫은 것들을 가장 먼저 시작하라고 조언한다. 하기 싫은 일을 피하고 미루게 된다면 삶을 선순환으로 바꾸기 더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된 이후 ESG

(환경·사회·거버넌스) 정책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식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글로벌 의제가 아닌 미국 국익을 강조하며 관세정책을 내밀자, 경기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ESG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8월까지 기후공시 규정이 필요하다고 옹호하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후공시 의무화에 반대하는 소송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 때와 달리 법정대응을 하지 않았다. 마크 우에다 SEC 대행은 “현행 규정으로도 재무적으로 중요한 기후위험은 이미 공시가 가능하다”며 “새 규정은 불필요하게 과도한 정보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ESG 정책을 주도해 온 유럽연합(EU)도 속도조절에 나섰다. EU 집행위원회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의 적용 범위를 대폭 완화했다. CSDDD는 기업공급망 내 ESG 위반 여부를 감시하는 규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도 난감해

진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주요국 동향을 참고해 ESG 공시기준과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기후위기를 역행하는 움직임을 보일 순 있지만 국제적인 흐름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기후변화가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피해가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속도는 더디더라도 국제적으로는 ESG를 내재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 의미다. ESG 공시기준은 지금 상황에서 어려운 것이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트럼프 정부에 따라 반 ESG 흐름을 따라가면 국제금융시장에서 점점 소외되고 국내 주식까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당장에는 반 ESG가 쉽지만, 어렵더라도 지금 ESG를 내재화 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전화위복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 /yul115@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3월 18일 (음 2월 19일) <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이름 없는 꽃에서도 천사의 미소를 볼 수가, 48년생 기쁨과 근심은 종이 한 장 차이, 60년생 바람이 불어도 모두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 72년생 공짜를 바라지 말고 투자를 해야, 84년생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고 앞뒤를,

소 37년생 주변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다, 49년생 목표를 세우고 온 힘을 기울이자, 61년생 날씨 탓만 하지 말고 일단 밖으로 나가라, 73년생 가계부를 써보고 자금계획을 새롭게 하도록, 85년생 웃생긴 새가 노래를 잘할 리가 없는데,

호랑이 38년생 지금이라도 남은 인생은 신념대로 설계를, 50년생 분수를 지켜야 도리, 62년생 차는 다음에 바꾸는 것이 아떨지, 74년생 손뼉대 마주쳐야 소리가 나니 화합을 해야, 86년생 믿은 만큼 좋은 결과를 가져오니 성실한 마음으로,

토끼 39년생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정리해볼 것이다, 51년생 꽃이 아름다운 건 잘해야 열출이다, 63년생 가족 간에도 신용은 지켜야 한다, 75년생 초조해하지 말고 좀 더 기다리면 된다, 87년생 질서가 있는 생활을 해야만,

용 40년생 존재가 아름다우니 힘을 내자, 52년생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니 의견일이 먼저 아닌가, 64년생 누구를 위한 봉사인가, 76년생 베풀면 나에게로 돌아오는 이치, 88년생 일에 의미 부여만 하다가 직장을 어찌 다닐지,

뱀 41년생 머리보다 가슴으로 느끼는 일을 하라, 53년생 이성을 만나 지출이 많다, 65년생 좋은 것을 포기하고 마음이 아프다, 77년생 사소한 인연이라도 소홀히 대하지 않도록, 89년생 어느 길로 가도 목적지에 도달하는 운 좋은 날,

말 42년생 종로에서 뽕 맛과 한강에 가서 분풀이하려 하겠다, 54년생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는다, 66년생 뜻하지 않은 행운이 흡족하다, 78년생 이별하러거든 확실히 얘기하고 정리를 해야, 90년생 가는 사람도 내게는 소중한 사람일 텐데,

양 43년생 오후 금전운이 해결된다, 55년생 어떤 결과가 다 내 탓이니 원망하지 마라, 67년생 남들 기준도 생각해야, 79년생 군병이라도 구르는 재주가 있으니 버릴 것이 없다, 91년생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니 정성스러운 기도를,

원숭이 44년생 일의 마무리도 시작만큼 중요하니 정리정돈을, 56년생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하니 부부간 협력을, 68년생 스스로 희망을 만들어 가라, 80년생 생각 보다 기다림이 길어질 수 있다, 92년생 돌아갈 수 없기에 지난날이 생각한다,

닭 45년생 습관이 주는 편안함을 이겨야 뜻을 이룰 수 있다, 57년생 우는 아이는 달래야 한다, 69년생 가까운 사람의 병문안 갈 일이다, 81년생 갈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격, 93년생 땅이 꺼지면 어쩌나 하는 우울한 마음이다,

개 46년생 보석비가 쏟아져도 사람은 만족을 모르니 마음을 비워라, 58년생 자신감을 내면에서 온다, 70년생 입을 무겁게 하고 사람을 만나라, 82년생 뛰어나고 모자란 것은 시간이 가면 분명해진다, 94년생 재력도 인간성과 비례하니 성실하게,

돼지 47년생 관청이나 큰 단체에서 일거리를 맡는다, 59년생 문서로 인한 이익이 있다, 71년생 가야 할 길은 많이 남았는데 지친다, 83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날이니 서류를 잘 살펴서, 95년생 태어난 자체가 고생하고 사는 것으로 인생사이니,

김상회의四季

인사가 만사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조직에서 어떤 사람을 어느 자리에 쓰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뜻이다. 직원 인사도 중요하지만, 간부 인사는 때때로 조직의 흥망을 가르기도 한다. 그래서 어느 조직이든 간부를 임용할 때는 신중히 처리한다. 중견기업에서 총본부장을 잘못 기용해서 직원 사기가 푹 떨어지고 내부 분란이 심해진 경우가 있었다. 기업 오너 부락으로 그 본부장의 사주를 볼 기회가 있었는데 편관이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었다. 편관 사주는 자리 욕심이 많고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

책임감이 강한 것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과에 강한 집착을 보이는 단점이 있다. 성과를 강조하다 보니 거칠고 폭력적인 언행을 드러낼 때가 있지만 회사에서는윗사람의 신임을 얻는다. 회사에 분란을 일으킨 본부장은 너무 강한 편관 뿐만 아니라 인성도 문제였다. 권력과 자리 욕심이 컸는데 이기적이고 편협했다.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직원들을 쥐어짜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비난하기 일쑤였다. 자기를 따르는 직원들만 먼저 승진시키고 인센티브도 더 많이 받아갈 수 있도록 조정했다.

그렇지만 자기가 편애하던 직원도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가차 없이 한직으로 밀어냈다. 출세에 도움에 용도가 없으면 헌신처럼 버리는 꼴이었다. 그렇게 일 년이 지나니 전체 회사 분위기가 거칠어지고 냉랭해졌다. 간부 하나를 잘못 기용해서 회사 풍토가 엉망이 되었다. 기업의 총수는 그때부터 중요한 인사가 있을 때마다 후보자 사주를 들고 필자를 찾아오곤 했다. 사주는 한 사람의 인생행로를 보여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속해있는 조직의 행로를 결정하기도 한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책 출간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좌측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7	3	5		1	9			
	1		2					
						3	8	
		1	4				2	
		9		2		1		
4					1	8		
	6	8						
					8		6	
			9	7		4	3	8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6	7	9	2	6	2	9	1
9	9	2	8	7	1	2	6	8
6	1	2	2	9	8	8	9	7
9	9	8	1	6	2	8	7	2
7	2	1	8	2	9	6	8	9
8	2	6	9	8	7	1	2	9
1	8	8	2	9	9	7	2	6
2	6	9	7	8	2	9	1	8
2	7	9	6	1	8	9	8	2

2	2	6	8	7	8	1	9	9
7	8	9	1	2	9	2	8	6
9	8	1	6	2	9	2	8	7
1	9	2	2	8	6	7	2	8
6	9	8	7	1	2	9	2	8
2	7	8	9	8	6	9	1	2
8	6	7	9	2	8	2	1	1
8	1	2	2	6	7	8	9	9
9	2	9	8	1	7	6	2	2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63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736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개별 평가 받고, 나만의 문제 풀고 인공지능과 함께 '맞춤공부' 해요

교육부, 'AI 단추 플러스' 서비스 개인 맞춤형으로 체계적 학습 가능 고도화된 학습분석으로 효율성↑

교육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학생 개별 맞춤형 학습 서비스를 선보인다. 기존 제공하던 학습지원 기능을 넘어 학생 개별 진단평가부터 수준별 학습, 최종평가에 이르는 일련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는 17일 초·중·고교생 대상 AI 기반 자기주도 학습 지원시스템인 '인공지능(AI) 단추 플러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비에스(EBS) 'AI 단추 플러스'는 기존의 AI 학습지원시스템인 단추(단계별 추천학습) 서비스를 고도화한 것으로, 심층학습(딥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에 서비스가 개선되면서 중·고생은 진단평가에서 개념학습, 심화학습, 최종평가에 이르는 'AI 코스웨어'를 제공받는다.



'EBS AI 단추 플러스' 고교 서비스 첫 화면. /교육부

AI 코스웨어 학습관에서는 자기진단·진단평가를 실시한 후 자신의 수준에 맞는 과정(개념학습, 심화학습, 최종평가)을 추천받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이때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제공받아 틀린 문제나 부족한 개념에 대해 학습할 수 있으며, 고도화된 학습 분석을 통해 자신의 학습현황과 학습진단 결과도 대시보드로 제공받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단과학습관'도 새롭게 도입됐다. 단과학습관에서 기존 수학은 학습 및 평가 기능이 고도화됐으며, 국어·영어 과목은 신설됐다. 단과학습관에서는 '고

교 고전문학, 중·고 영어 어휘(VOC A), 중·고 수학 지도(MAP)'를 통해 국어·영어·수학 학습을 보충할 수 있다. 아울러, EBS교재·수능·학력평가·모의평가 등 전체 문항 내에서 맞춤형 문제를 추천받아 과목별로 나만의 시험지를 만들고 풀어볼 수 있다.

서비스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서비스 누리집(<https://ai-plus.ebs.co.kr>)에 접속해 초·중·고교 등 학교급별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역사 및 한국사에 대한 맞춤형 학습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경기도 '서·동부 SOC 대개발' 112조 투입

지역 균형발전 대규모 프로젝트
14개 시군 대상 철도, 관광 등 개발
155.3조 생산유발효과 있을 것

경기도가 지역 균형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2040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을 최종 수립했다. 도는 2040년까지 224개 사업에 총 112조 원을 투자해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구상은 지난해 개최한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 이후 1년간 민·관이 협력해 마련한 결과물이다. 경부축 중심의 개발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서부(화성, 안산, 평택, 시흥, 파주, 김포, 안성)와 동부(용인, 남양주, 광주, 이천, 양평, 여주, 가평) 지역 14개 시군이 대상이다.

이번 SOC 대개발 계획은 2040년까지 도로와 철도 교통 기반시설(인프라)과 경기둘레길 등 감성여가분야, 도시개발 등 민간개발 분야, 행정지원 및 제도개선 등 개발지원 분야 등에서 224건의 세부사업을 선정하고 112조 원을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도는 이를 통해 155조 3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도로는 총 76개 노선, 총사업비 34조 1000억 원 규모이며 ▲화성~안성 등 고속도로 11개 노선 ▲제2경춘 등 국도 26개 노선 ▲기흥~처인 등 지방도 34개 노선 ▲우정~향남 등 시도 5개 노선을 반영해 지역 간 연결 강화 및 교통혼잡구간을 개선한다.

철도는 총 46개 노선, 총사업비 54조 3000억 원 규모이며 ▲KTX 파주 연장 등 KTX·GTX 11개 노선 ▲평택~부발 등 일반·광역·도시철도 35개 노선을 반영해 지역격차 해소와 교통 편의를 제공한다.

개발구상은 총면적 193km², 23조 6000억 원 규모로 ▲철도망 등 광역기반시설과 연계한 광주역세권 2단계 등 역세권개발 14개소 ▲탄소저감형 친환경 도시조성을 위한 파주 미군반환공여구역 등 도시개발 7개소 ▲기술집약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바이오 트립플렉스 시흥 특화단지 등 산업단지 개발 17개소 ▲체류형 관광휴양원 확보를 위한 여주 신록사 등 관광개발 23개소를 반영했다.

/경기=유진재 기자 yujin@

유아부터 청년까지... 연령별 영어교육 확대

서울시, '서울런 영어교육' 운영 초등생에 1대1 화상영어, 영어캠프 고등학생·성인에 자격증 취득 강의

'1대1 원어민 화상영어'를 통해 원어민이랑 대화하고 영어를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북극클래스로 영어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더 좋았습니다. 다양한 이벤트로 아이가 더 열심히 참여했어요. (2024년 서울런 1대1 원어민 화상영어 참여 학생 학부모)

서울시가 유아부터 초·중·고등학생, 대학생과 청년까지 연령대별 맞춤형 영어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가정 소득격차가 영어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연령대별

'서울런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영어 학습 환경이 부족한 유아와 초등 저학년을 위해 기초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만 5세 유아 40명을 대상으로는 유아의 발달 수준과 선호도를 반영한 애니메이션 기반의 1대2 그룹 화상수업 '서울런 키즈 화상영어'를 제공한다.

'서울런 키즈 화상영어'는 서연 1회,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주 2회, 25분 내외로 운영된다. 모집은 3월에 진행되며, 4~7월 교육이 이뤄진다.

예비 초등학생부터 초등 3학년까지는 원어민과의 '1대1 화상영어'를 통해 알파벳과 파닉스 등 기초 교육부터

단계적으로 맞춤 학습을 지원한다.

초등 4학년부터 중학생까지는 영어 학습과 체험활동을 결합한 심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실질 영어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한국외국어대학교 등과 협력해 방학 기간 중 '영어동행캠프'를 운영해 원어민 강사와 함께하는 수준별 수업과 ▲영어 의사소통 수업 ▲외국인 친구와의 문화교류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한다.

고등학생과 만 24세 이하 청년을 위해서는 실용 영어 회화와 TOEIC·TOEFL·TEPS 등 영어 자격증 취득을 위한 온라인 강의를 제공해 진로·취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 "한양도성 돌며 봄나들이 즐겨요"

한양도성 순성코스 4개 구간 소개
벚꽃명소, 야경명소 등 볼거리 가득

서울시가 춘분(春分)을 앞두고, 본격적인 봄을 맞아 시민들에게 올봄 방문하기 좋은 한양도성 순성(巡城) 코스를 추천한다.

서울시는 17일 관내 봄나들이 코스로 남산부터 낙산, 백악, 인왕 등 4개 구간으로 이어지는 한양도성 순성코스를 소개했다. 순성(巡城)은 도성을 한 바퀴 돌며 경치를 구경한다는 의미다.

주요 구간별 볼점 볼거리로는 ▲벚꽃명소 남산구간(남산공원, 한양도성 유적전시관) ▲야경명소 낙산구간(한양도성박물관, 낙산공원) ▲전망명소 백악구간(팔각정 전망대) ▲문학명소

인왕구간(윤동주 시인의 흔적, 윤동주 문학관) 이 대표적이다.

특히 남산공원은 서울시민들에게 오랜 사랑을 받아 온 도심 속 최대 녹지 공간으로, 한양도성 유적전시관에서는 한양도성의 역사와 함께 완주 인증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마세썬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나들이하기 좋은 봄을 맞이해 더 많은 시민들이 한양도성을 찾아 역사와 자연이 함께하는 휴식을 즐기시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한양도성이 도심 속 살아있는 역사공간이자 휴식공간으로 시민들이 언제든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즐거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외진 길도 '안심이앱'과 함께라면 '안심'

서울시, 안심귀가 필수앱 전면개편
직접 촬영한 영상, 실시간 모니터링

앞으로 CCTV가 없어 불안했던 외진 길도 '안심이앱'만 있으면 내가 촬영하는 영상을 CCTV 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위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경찰 출동까지 지원된다.

서울시는 불안한 귀갓길을 지켜주는

대표적인 안심귀가 필수 앱인 '안심이앱'을 전면 개편해 '안심영상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안심이앱은 안심이 총괄센터와 자치구 CCTV 관제센터가 컨트롤타워가 돼 서울 전역 11만 대의 CCTV를 연계한 24시간 안심귀가 앱이다. 앱으로 요청(긴급신고)하면 사용자 주변의 CCTV를 자치구 CCTV 관제센터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구조 지원까지 해준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 관악산 둘레길에서 일어난 사고가 CCTV가 없는 지점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알려진 이후 CCTV 사각지대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있어 '안심영상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안심영상 서비스'를 실행하면 자동으로 촬영이 시작되며, 주변에 CCTV가 있는 곳에서는 사용자 주변 CCTV 3개에 추가로 스마트폰 영상까지 동시에 모니터링된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39 | 해질 / 18:42

3월 18일 (화)
음력 : 2월 19일

수도권 날씨
-1 ~ 6℃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지역별 날씨 (기온/강수량): 연천 -3/6, 동두천 -3/6, 가평 -4/6, 양평 -1/6, 용인 -1/5, 평택 -2/5, 수원 -1/5, 인천 -2/6, 파주 -4/6, 서울 -1/6, 백령도 0/4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트럼프 "18일 푸틴과 통화...상호관세 4월 2일 예정대로 부과" /사진 뉴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립화·나토가입 거부 약속" 요구할 것

▲美중동특사 "하마스 중재안 거부 나쁜 결말... 좋지 못할 것"
▲VOA·RFA 폐쇄 위기에...中반체제 인사 "중공 기빠할 일"

▲'대만 담당' 중국 동부전구 "언제든 싸울 준비 돼 있다"
▲유발 하라리 "AI, 민주주의에 매우 위험...개발 속도 떨어뜨려야"



홈플러스
“유동화증권
전액 책임질 것”
니



Life

제약·바이오업계
미용의료시장 ‘활활’
최대실적 등 성과
L2



무라벨 생수, 투명페트 맥주... 자원순환으로 지구 아껴요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롯데칠성음료

오랜 기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료·주류 기업으로 자리잡은 롯데칠성음료가 지속가능성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패키지 자원순환과 페트병 회수 및 업사이클링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ESG를 강화하고 장기적인 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롯데칠성음료는 무라벨 페트병 제품의 최초 개발, 맥주의 투명 페트병 선도적 전환 등 패키지 자원순환을 위한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국내 최초 재생원료를 활용한 rPET(Recycle PET, 재생 페트) 제품의 도입과 재활용에 용이한 패키지를 개발하는 등 꾸준한 패키지 혁신을 통해 선도적으로 환경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2020년 1월에는 국내 생수 브랜드 최초로 페트병 몸체에 라벨을 없앤 무라벨 제품 ‘아이시스8.0 ECO’를 선보였다. 아이시스 고유의 브랜드를 라벨 대신 용기에 표현해 페트병 재활용 효율을 높이고 플라스틱 라벨 사용을 절감하자는 과감한 선택이었다. 롯데칠성음료가 무라벨 제품 확대의 노력에 따른 연간 플라스틱 사용 절감량은 182t에 달한다. 이는 유라벨 생수 500ml 페트병 라벨의 무게가 0.37g인 점을 고려했을 때, 제품 약 5억 개 분량의 라벨을 감축한 것으로 개당 길이 21.1cm의 라벨을 일렬로 연결 시 지구 둘레의 두 바퀴 반인 약 10만km에 달한다.

무라벨 제품은 가치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들에게 생수 구매의 주요 기준으로 떠올라 전체 생수 판매량의 절반 이상을(2024년 기준 약 59%) 차지해 대체 제품으로 자리잡았으며, 탄산, 커피 제품군을 포함한 무라벨 제품의 비중은 약 30% 수준으로 성장했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국내 최초로 질소 충전 기술을 적용한 생수 ‘초경량 아이시스’를 선보이며 11.6g이었던 500ml 페트병



- ① 롯데칠성음료는 지난해 10월 국내 최초로 질소 충전 기술을 적용한 생수 ‘초경량 아이시스’를 선보였다.
- ② 크러시 1.6L 투명 페트.
- ③ 롯데칠성음료 업사이클링 친환경 유니폼.
- ④ 롯데칠성음료 직원이 업사이클링 유니폼을 입고 있다.
- ⑤ 롯데칠성음료가 바다숲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충청남도 태안군 의항리 해역에서 해양경찰청, 환경재단,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 어업임과 함께 ‘바다숲 가꾸기’ 잘피 이식 사업을 진행했다.

지속가능성 확보 위해 ESG 경영 박차 무라벨 최초 개발·투명 페트병 전환 등 재활용 용이한 패키지로 자원순환 앞장 플라스틱 사용 줄이고 재생원료 활용

깨끗한 바다 만들기 기금조성 캠페인 탄소흡수원 ‘잘피’ 이식, 바다숲 복원韓지속가능성대회서 음료부문 1위도

중량을 9.4g으로 18.9% 경량화 했다. 1997년 아이시스 출시 당시 용기 무게인 22g과 비교하면 약 57% 낮아졌다. 초경량 아이시스는 제품 내부에 충전한 액체 질소가 기체로 바뀌며 형성한 내부 압력으로 패키지 안정성을 유지하고, 손쉽게 구겨져 재활용 시 편의성도 함께 제고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이번 초경량 패키지 도입으로 연간 127t의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페트병을 다시 페트병으로 만드는 ‘보틀 투 보틀(Bottle to Bottle)’의 실현

을 위해 ‘아이시스8.0 ECO 1.5L’ 제품에 재생원료 10%를 넣어 생산 중이며, 페플라스틱의 매립 및 소각에 따른 환경 영향을 줄여 사용된 플라스틱이 다시 페트병으로 돌아가는 자원순환 경제 체계의 기틀을 만들었다.

재생원료를 활용해 업사이클링 유니폼도 제작해 3000벌을 현장 직원에게 지급한 바 있다. 친환경 유니폼 제작에는 1벌당 아이시스 페트병 약 18개가 사용됐다. 약 3000명의 현장 직원에게 지급하기 위해 약 5만4000개의 페트병이 재활용됐다.

롯데칠성음료는 ESG 경영 성과를 담은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하고, ESG 경영 실천과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2030 플라스틱 감축 로드맵’을 수립했다.

이에 2030년까지 석유에서 추출된 원료로 만들어진 신재 플라스틱 사용량을 2023년 대비 2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플라스틱 용기 경량화’와 ‘재생원료 사용 확대’라는 두 가지 추진 전략을 내세웠다.

롯데칠성음료는 탄소중립 실현에도 앞장서고 있다. 바다숲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충청남도 태안군 의항리 해역에서 해양경찰청, 환경재단,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 어업임과 함께 ‘바다숲 가꾸기’ 잘피 이식 사업을 진행했다.

탄소흡수원인 잘피 이식 사업은 ‘바다를 부탁해 칠성사이다’ 캠페인을 통해 누적된 기금으로 수행됐으며, 태안 해양경찰서, 환경재단, 의항리 어촌계원이 참여해 충청남도 태안 지역에 잘피 1만 주를 이식했다.

롯데칠성음료는 깨끗한 바다 만들기 기금 조성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전국 390여개 소매점에서 칠성사이다 ESG 사회공헌 매대를 운영하고 기부 펀딩을 진



행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ESG 기준원의 환경분야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A+ 등급을 받았으며, 한국표준협회에서 주관하는 ‘2024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에서 지속가능성 지수 음료부문 1위 기업으로 3년 연속 선정됐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ESG 경영을 적극 추진하여 미래 경쟁력 창출을 위해 앞으로도 롯데칠성음료를 사랑해주시는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구의 기후 변화와 환경 위협으로부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지속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쇼트트랙 최민정,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 3년 연속 올림픽 진출 확정
▲배드민턴 안세영, 2년 만에 전영오픈 탈환... 국제대회 4연속 우승 /사진 뉴시스

▲제40회 LA마라톤대회에서 30여 년 만에 미국인 우승
▲고성 유스호스텔, 내달 개장 못한다...공사 중지 등 우연곡절 많아

▲‘손흥민 교체 출전’ 토트넘, 폴럼 원정 완패...리그 14위 추락
▲김재현 유족, 유튜버 이진호 고소...“김수현에 법적대응 검토”